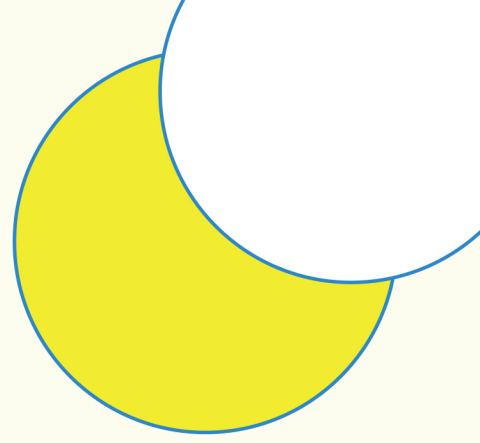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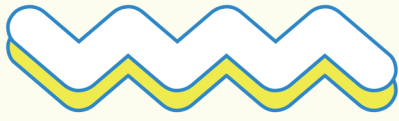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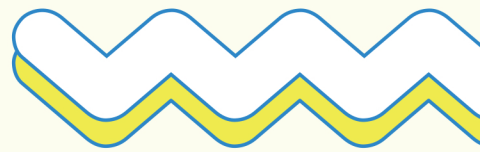
2020 동북4구 도시재생의 날·협력발전 콘퍼런스



로컬 X 로컬

로컬들과 로컬로서 살아가기

자료집



| 동북4구 협력을 말하다 '15~'20

- 2020 동북4구 협력발전 콘퍼런스 |로컬×로컬|
- 2019 동북4구 문화예술로 재생하다
- 2018 동북4구 평화도시재생 & 도시브랜드가치 콘퍼런스
- 2017 동북4구 지역상생 콘퍼런스
- 2016 동북4구 신경제 협치 콘퍼런스 “동북4구 신경제를 만나다”
- 2015 동북4구 지역협력을 통한 혁신과 발전



2020 동북4구 도시재생의 날·콘퍼런스

로컬×로컬

로컬들과 로컬로서 살아가기

일 시 2020년 10월~11월

주 최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이 메 일 db4gur@naver.com

대표전화 02-907-9301~4

○ 목차

2020 동북4구 협력발전 콘퍼런스

- 02 들어가며
- 05 축하의 글
- 11 **기조발제** | 포스트코로나시대 거버넌스 기반 ‘협력’의 가치
- 45 **발 제1**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와 시민참여
- 63 **발 제2** | 신경제중심지와 동북4구 센터의 역할의 현재와 미래
- 73 **토 론** | 동북4구 지역중심 협력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의 필요성

동북4구 도시재생 간담회

콘퍼런스 사전간담회

- 78 문화와 참여
- 82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 86 로컬콘텐츠

콘퍼런스 사후간담회

- 90 동북4구 협력발전과 지역협력

2020 동북4구 도시재생의날·협력발전 콘퍼런스 | 로컬×로컬 |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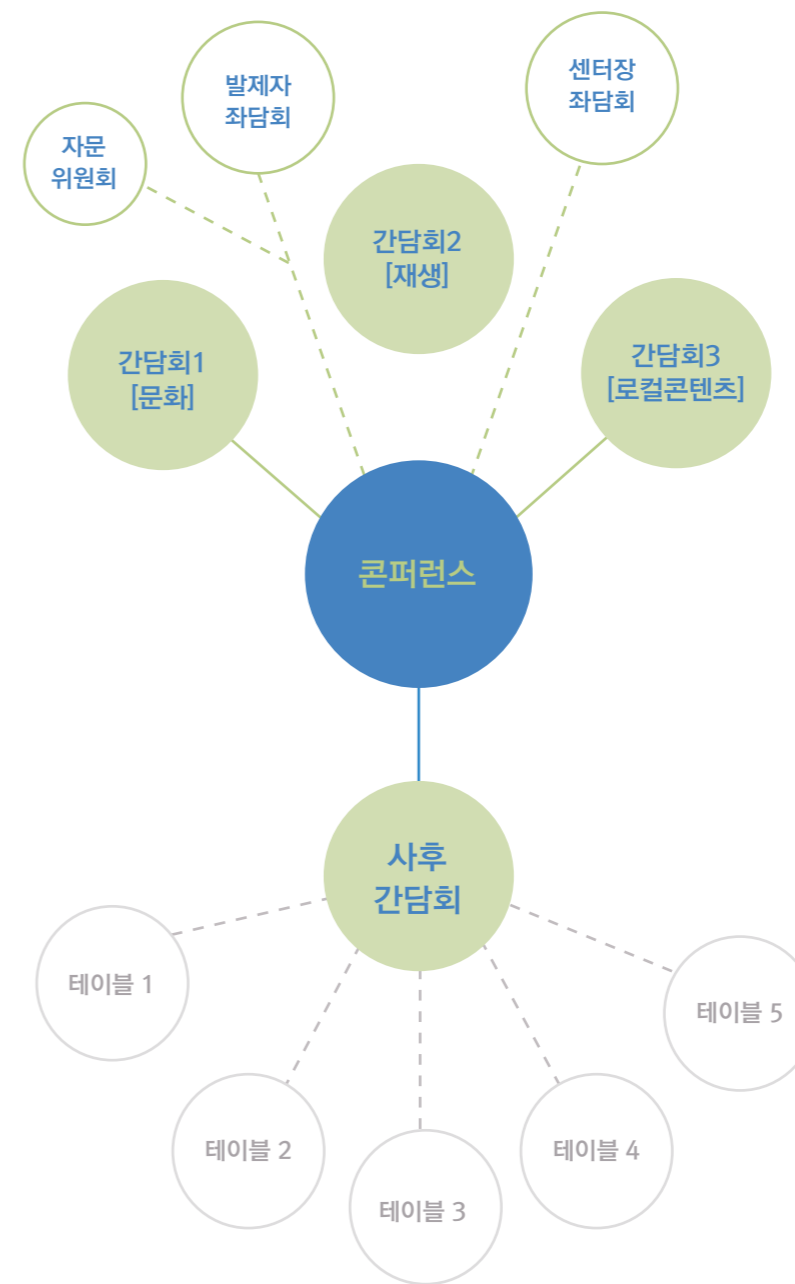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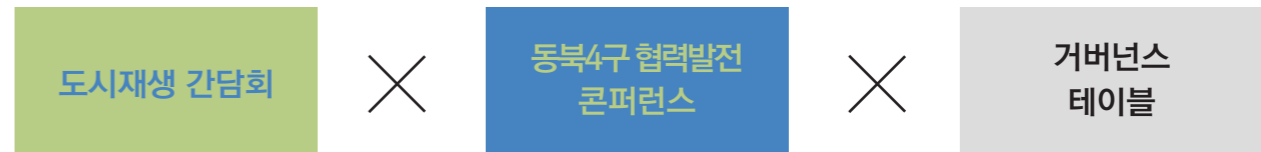
자료집을 내며



안석희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센터장

코로나와 기후변화가 불러온 새로운 전환의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센터도 올 한 해 이러한 변화 한 가운데서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많은 분들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대면 활동과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동북4구 지역의 많은 분들과 연결을 만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사업은 하나씩 그 결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달 새롭게 문을 연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창동아우르네에서 진행된 콘퍼런스 로컬×로컬은 이러한 전환의 시대를 맞아 우리가 함께 지혜를 만들어간 한 과정입니다. 초대 센터장을 지내셨던 정건화 교수님의 기초발제를 통해 이 시대 지역 협력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오대중 팀장님의 발제를 통해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의 변화된 모습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론과 참여로 동북4구의 지역 협력과 도시재생에 관한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쪼록 이 내용이 보다 나은 협력의 방식을 찾는 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으로, 참여로 이야기를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 콘퍼런스 사전간담회
[문화와 참여]
10월 22일(목)
10:00~12:00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10월 27일(화)
10:00~12:00
- [로컬콘텐츠]
10월 28일(수)
16:00~18:00
- 동북4구 협력발전 콘퍼런스
11월 13일(금)
13:50~16:30
- 콘퍼런스 사후간담회
11월 23일(월)
14:00~16:00
- 동북4구 거버넌스 테이블
상시

2020 동북4구 도시재생의 날·협력발전 콘퍼런스 |로컬×로컬| 요약

1. 동북4구 협력발전 콘퍼런스

기조발제 포스트코로나시대 거버넌스 기반 '협력'의 가치

- 포스트코로나시대 동북4구 지역협력 10년을 돌아보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역순환경제 기반구축의 필요성 제고

발제1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와 시민참여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인프라 조성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사업추진현황

발제2 신경제중심지와 동북4구 센터의 역할의 현재와 미래

- 동북4구 협력발전을 위한 그간의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역할과 동북4구 민간거버넌스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차원에서의 협력 방안

토론 동북4구 지역중심 협력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의 필요성

2. 동북4구 도시재생 간담회

| 콘퍼런스 사전간담회

① 문화와 참여

- 창동역광장일대 민간거버넌스 테이블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일몰 이후 창동역광장일대 테이블의 운영 방향
- 도봉구 시민자산화 추진단의 활동 사례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②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대학협력

- 동북4구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대학협력기반 아젠다 발굴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와 동북4구 센터의 현재와 미래
- 글로벌아트랩과 LOC(Local Open College)포럼 기획

③ 로컬콘텐츠

- 각자의 활동에서 바라본 동북4구
- 동북4구 협력의 필요성과 핵심가치
- 함께 할 수 있는 동북4구 콘텐츠

| 콘퍼런스 사후간담회

- 동북4구 협력발전 콘퍼런스 회고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를 중심으로 한 동북4구 통합공론장



축하의 글



김성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2020년 동북 4구 도시재생의 날 콘퍼런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지요. 과거에는 그 자치구가 모두 개별적인 발전을 위해서 각자도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 시절에 인근 구청장님들과 함께 동북 4구의 협력모델을 처음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그 협력모델의 상징이 창동·상계 지역발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봉구 쪽은 이만석 규모의 케이팝 전용 극장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고요. 노원구 쪽에는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생명의료 혁신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바이오산업은 반도체 다음 먹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음악과 바이오산업이 서울 동북 지역에 새로운 문화와 성장 동력,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서울은 이제 남과 북이 아주 조화로운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동북 4구 콘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도 그 공간이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동북4구의 도시재생 콘퍼런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대면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이런 시기이므로 오히려 더 이 콘퍼런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는 따뜻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 최초로 자치 단체 간의 모범적인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시가 재생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동북4구의 협력은 전국의 모범 사례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에게는 희망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도시재생을 위해 꿈꾸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더 나은 동북4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동북4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입니다. 2020년 동북4구 도시재생의 날·콘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 동북4구는 연대와 협력을 발판으로 서울 동북권의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개 자치구는 동북권 주민들의 보다 나은 일상 복귀를 위해서,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협력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지역 협력과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콘퍼런스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동북권 미래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북구도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처럼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과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동북4구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박경수
강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박경수입니다. 2020년 동북4구 도시재생의 날·콘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동북4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동북4구와 서울이 문화와 경제발전의 새로운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동북4구의 비전을 함께 실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온라인 콘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봉구청장 이동진입니다. 먼저 2020년 동북4구 도시재생의 날 온라인 콘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동북4구는 2012년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만들었고, 2016년에는 이 발전협의회가 행정협의회로 격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협의회가 지역 발전을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이끌어 오면서 동북4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동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 아레나 공연장을 중심으로 문화산업단지, 로봇과학관 그리고 사진 미술관 등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첫 성과로 동북권 세대 융합형 복합 시설이 11월 27일 개관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동북4구가 성장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동북4구 지역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동북4구 지역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구청장 오승록입니다. 동북4구 협력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콘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인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는 동북4구에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기회의 땅입니다. 노원구만 해도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나서 노후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양주로 이전하는 창동 차량기지가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이곳 7만 5천 평을 세계적인 바이오 의료 혁신단지로 조정하기 위해 서울대 병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는 이미 지난 5월에 의료전문가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이들 부지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시민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진행 단계별로 각계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는 바이오 의료 혁신단지를 비롯해 서울 아레나 복합환승센터 등 여러 핵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우리 동북4구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퍼런스가 미래 동북4구 발전 방향과 비전, 협력에 가치를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2선거구)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이상훈입니다. 동북4구 시의원 연구모임인 사구뭉치 대표와 서울시의회 원내수석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이번 콘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시민주도와 지역 중심의 그린 뉴딜을 향한 많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협력과 연대를 목표로 동북4구의 협력 발전을 논의하는 이번 콘퍼런스가 개최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맹활약을 기대하며 아울러 이번 콘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직접 함께하면 참 좋겠는데요. 행정 사무 감사 기간이라 참가 어려운 점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께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파이팅입니다!



박진식
도봉구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의회 의장 박진식입니다. 동북4구 도시재생의 날 콘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의 창동·상계 지역은 다양하고 엄청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아레나 공연장, GTX-C 노선,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 시설 등 많은 대규모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부처와 서울시,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와 지역주민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협력에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앞장서기를 기대하며 이번 콘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발제

포스트코로나시대 거버넌스 기반 ‘협력’의 가치

영상보기



정건화 |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초대 센터장

동북4구 도시재생의 날·콘퍼런스의 주제 로컬 바이 로컬의 전제가 되는 큰 타이틀은 포스트코로나시대로 오늘은 코로나19팬데믹에 지역협력이 가진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즐겁고 감사하고 반갑지만, 뭔가 낯설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멋진 공간과 많은 인사말 속에 앞으로 대규모 공연장도 만들어지고 좋은 시설들이 늘어날텐데, 이곳을 누가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오늘 이 행사의 자리를 가득 채워야 될 동북4구의 주민과 거리를 둔 채 우리는 온라인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웃고 이야기하고, 웃음을 터뜨려야 되는데, 마스크를 써야하고 손을 잡을 수도 없는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를 규정하는 압도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매우 반갑습니다. 저희가 10년동안 해온 로컬이야기로서 예전에는 로컬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의미 있다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너무나 절실하고 이것만이 답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협력’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갖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저는 검은 백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조는 다 흰데, 검은 백조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저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의외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은 백조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인데, 미국의 서브프라임위기, 주식 주가의 폭락 등을 예견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나심 탈레브는 저서 “검은 백조”에서 ‘검은 백조는 일어날 사건이 너무나 확률적으로 낮은데,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충격을 만들어내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확률적으로는 일어날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그 파괴력이 엄청난. 정확히 코로나 19가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의미는 너무나 확률이 낮아 사람들은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해 대비가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준의 재앙이 다시 나온다. 저희가 포스트코로나에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지만, 무엇을 배워야할지 모르는 상황과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공통 감염병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대 산업문명의 분명한 결과물입니다. 결론은 무언가 전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전환은 깊고 넓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매우 어렵고 대부분 실패합니다.

3

검은 백조, The Impact of Highly Improbable

Coronavirus: The Black Swan

“은 세상이 동시에 멈추는 경험’은 특별한 경험으로 누구도 이런 경험을 사전에 의미있게 예측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건 일종의 ‘검은백조’와 같은 사건이다”

4

나심 탈레브의 저서, 검은 백조

- ❖ 일어날 확률이 너무 작지만 일어나면 엄청난 충격과 비용을 치르게 하는 사건(들)을 지칭
- ❖ 1) 극단값(희귀성), 극도의 충격, 오류의 반복 가능성
- ❖ 2) 미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과 전망 요청

Nassim Nicholas Taleb, *The Black Swan, The Impact of Highly Improbable*, 2007

5

The New York Times SUNDAY REVIEW 2012.7.14

The Ecology of Disease: *Destroying Nature* Unleashes Infectious Diseases -

질병의 생태학

- ❖ 현대 산업문명이 지닌 생태계 파괴적 성격에 대한 성찰
- ❖ 현대 산업문명이 작동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 필요

The New York Times

The Ecology of Disease

이미 주류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견 했으나, 외면했습니다.

이미 10여년전에 전세계 GDP의 1% 정도의 비용으로 대응가능하며, 대비 하지 않으면 매년 5%에서 20%의 GDP가 재난·기후위기에 따른 산불, 홍수, 가뭄, 감염병을 치루게 될 것이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겪고 있습니다.

스턴 보고서(Stern Review), 2006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he Stern Review
NICHOLAS STERN

-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톰은 기후변화에 대한 7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
- 지금과 같은 방식의 경제, 사회적 행태가 지속되면 대공황이나 세계대전과 같은 규모의 파괴적 영향이 나타날 것. 이미 나타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비용으로 **매년 인류 전체 GDP의 5%-20%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추정**.
- 지금 행동에 나선다면 최악의 효과를 피하기 위한 비용은 매년 전체 GDP의 1%정도이므로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경제적 고려에서도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
- 2016년, 보고서 10주년 강연에 참석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반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행하는 노력의 비용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부진하고 그 속도가 느린 데 강한 아쉬움을 표현 (Kahn, Brian, 2018).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사실 방역은 잘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면에서 기후 약 당 국가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가진 생태용량의 8배를 우리가 소비하고 있으며, 그것을 면적으로 따지면, 앞으로는 지구가 3.3개가 더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기후약당국가, 한국

Earth Overshoot Day 1969-2018

2016년 현재 전 세계가 소비하는 자원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평균 1.6개분의 지구가 필요하고 **한국의 경우는 3.3개가 필요. 한국의 생태발자국은 한국의 생태계 재생능력(생태용량)의 8배**

How many countries are required to meet the demand of its citizens...

South Korea	4.5
Japan	3.8
Italy	4.6
Switzerland	4.5
U.K.	4.0
China	3.5
Spain	3.9
Germany	2.8
India	2.5
U.S.A.	3.3
France	1.7
World	1.7

그래서 오류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태도와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뀌어 된 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 뉴노멀(New Normal)

- ❖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려 해서도 안된다' 그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뉴노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 ❖ "우리가 **관점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존의 방식과 똑 같은 방식으로 다음의 사건을 예측하고 준비하려 하지만 다음의 사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오류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나심 탈레브)

패러다임 교체에서 중요한 것이 경제 인데,

오늘은 동북4구 도시재생과 연관된 주제로 도시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 중 우리나라는 특히 도시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도시에서 도시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아주 속되게 말을 하면 지구를 뽀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경제가 잘 나가는 나라일수록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9

1.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검은 백조(Black Swan)사건이기도 하고 흰 백조 (White Swan)사건이기도 하다.
2. **문명적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패러다임의 교체가 필요하다.**
3. 도시의 전환이 필요하다.
4.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경제의 회복력과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
5. 서울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인가?
6. 서울 동북 4구에서의 지역협력, 10년
7. 무엇을 위해 협력할 것인가: 지역순환경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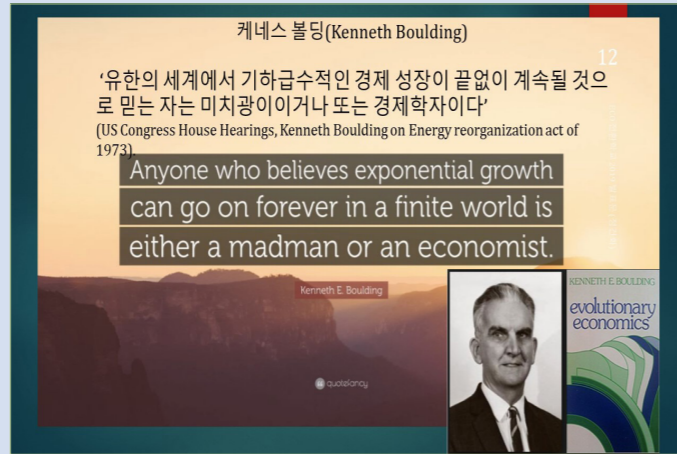
- ❖ 이미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성장 일변도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는 많이 지적된 바 있음. 여기에 더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이 경제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 ❖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글로벌 금융과 세계적 규모의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엮인 생산시스템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결정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위기에 시장은 작동하지 않았고 이윤동기로 움직이는 민간경제는 무기력하게 멈춰섰음.
- ❖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의 생활과 삶에 필요한 중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글로벌 이윤경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되고, 식량과 먹거리, 에너지, 보건과 의료 등이 그런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줌.**

Ecology & Economy, Carrying Capacity!!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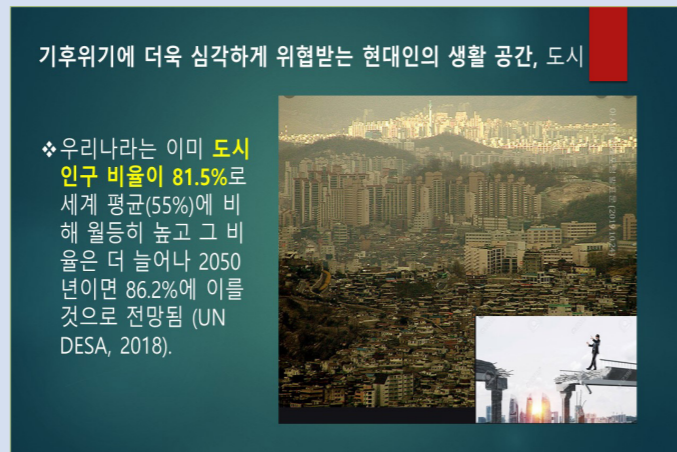
- ❖ 우리가 익숙한 사회, 우리가 익숙한 문명의 '급진적 변화, 즉 **문명적 전환**' 필요. 전환은 지난한 과제이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 새로운 시스템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핵심은 생태문명, 생태 친화적 문명이 될 수밖에 없으며, **지구의 수용 능력(Carrying Capacity) 안에서 운용되는 생태적 경제가 되어야 함**

그래서 경제학자 스스로도 이미 1970년대 초반에 계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쳤거나, 경제학자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전에도 존 스튜어트 밀 등 많은 사람들이 무한 성장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장해야 되고 동북4구 바이오단지 등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로컬의 문제인데요. 로컬을 다시 접근할 때는 일자리나 아니면 기후 위기나, 성장이나 보존이나, 개발이나 보존이나,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서는 대안을 찾아야 하고 저는 그것이 로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해 전 동북4구로 초청을 했던 일본의 사사키 교수는 로컬과 라이프라인을 들어 라이프라인은 생명줄, 생명선과 같은 의미로 절실함을 가지고 이 지역이나 로컬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다. 그냥 우아하고 좋은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라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은 물, 식량, 자원, 에너지 등으로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것의 마일리지 어떻게 줄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에 기초한 경제로서 시민경제라는 이름으로 경제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문제가 중요하고 옳지만 후순위입니다. 일자리, 성장이나 개발 등 경제논리에 의해 밀려 단지 좋은 가치로서 2·3등으로 방치되고 맙니다.

어떻게 함께 바꿀 것인가.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탈리아의 도시 밀라노, 프랑스의 파리 등 많은 곳에서 자동차 없는 도시를 만들든지 건물의 유리창을 두고 에너지 비효율적인 건물에 엄청난 세금부과 등 아주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라인과 인간안보
Life-line & Human Security

- 라이프라인: '물·식량·자원·에너지·자연환경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의 지속적 조달을 위한 물적 기반시설과 관련 제도 및 정책' (사사키 이치로(佐々木一郎))로서 인간안보의 기본조건
- '도시의 재구축'이라는 근본적인 수준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그 핵심은 라이프라인(Life line) 확보. 라이프라인 확보는 바로 도시 혹은 지역에서의 회복력(resilience)과 자급력(self sufficiency)을 갖추는 것

❖ 성장과 개발에만 올인하는 경제가 아니라 행복과 삶의 질, 안전, 자존감과 효능감과 같은 사회적 가치들이 존중되고 이들 가치에 기초한 경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제를 '도넛 경제' (케이트 레이워스) '시민경제' (Civic Economy)라 부를 수 있음.

❖ 이미 런던, 파리, 밀라노, 시애틀, 암스텔담 등 많은 도시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해서 파리협약 1.5도씨 유지를 위한 이행계획을 더욱 담대하게 실천한다고 선언. 자동차 도로를 자전거와 보행도로로 바꾸고 자동차의 속도제한을 강화했다.

❖ 또 공유자산(커먼즈)을 확대하면서 시민사회, 민간부문과 협력해서 순환경제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경주.

Forbes | Innovation | Leadership | Money | Business | Small Business | Lifestyle | L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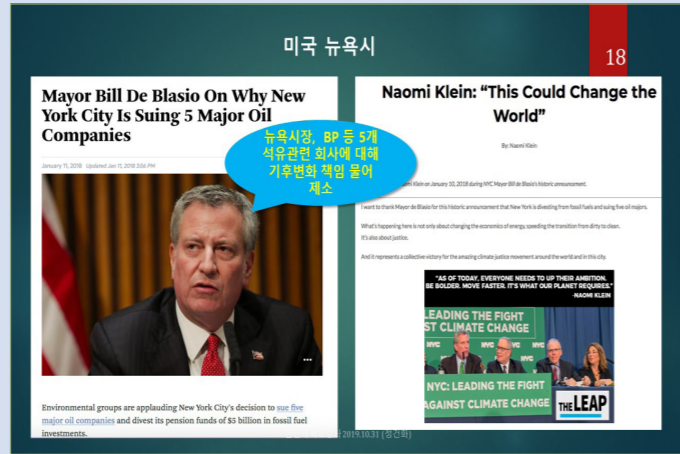
Parking Cull And Pocket Parks For England's Finest Street As Newcastle Plans Post-Pandemic Future

Carlton Field Senior Contributor @ Transportation
I have been writing about transport for 30...

POPULAR RESISTANCE.COM
Hard-Hit Italian City is Trailblazing The Way Towards A Better Post-Coronavirus World - PopularResistance.Org
Forbes (2020. 5.12)

· 파리, 밀라노, 시애틀...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의 뉴욕시만 해도, 뉴욕 공무원의 연금을 석유, 화석연료계통에 투자한 것을 다 회수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디베스트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시장은 그런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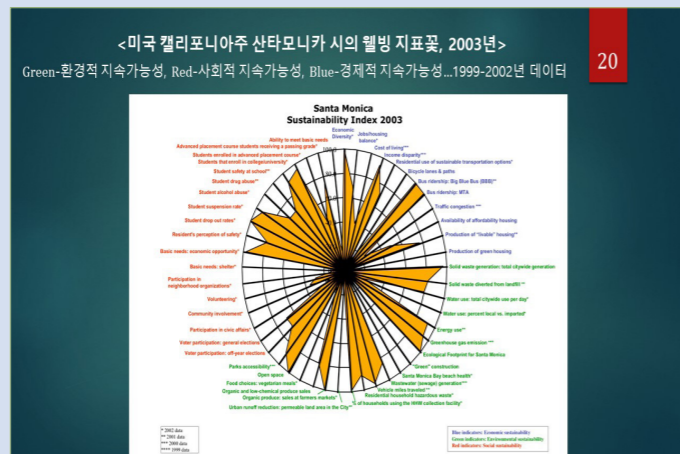
18

LA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부서를 아예 만들기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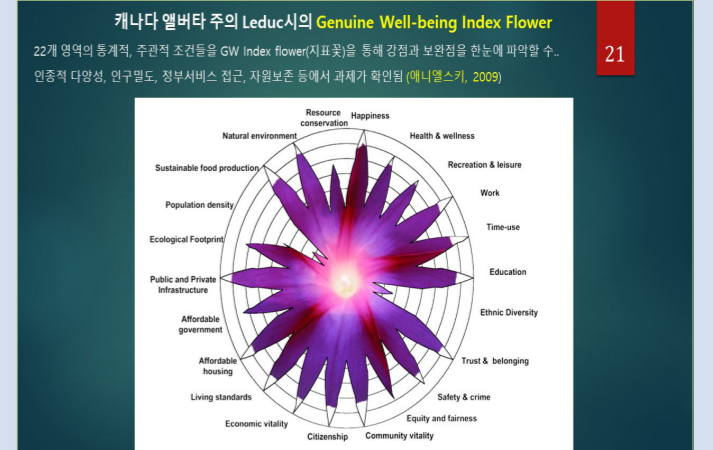
19

또 LA의 끝 산타모니카라는 작은 해안 도시는 행정을 위한 모든 지표로서 GDP가 아닌 인덱스 플라워라고 불리는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공기의 질, 자원순환 등과 같은 지표들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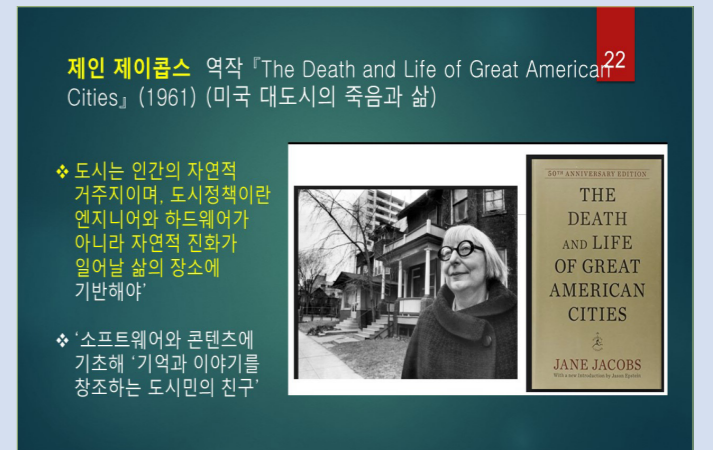
20

캐나다에 있는 위독이라는 도시의 사례도 있습니다.



21

미국의 제인제이콥스는 기존 도시정책에 있어 우리가 도시를 산업, 엔지니어, 자동차, 물류, 건물 등을 도시의 구성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시는 사람이 것으로 도시계획, 도시정책을 공학에서 인문학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다른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로컬의 경제와 너무나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22

도시경제 혹은 시민경제는 그동안 이야기해온 산업단지, 기업의 유치, GDP, 단순한 고용 등이 아닌, 자영업자, 돌봄,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빌딩 등이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마치 자연 생태계의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생활하듯이 그러한 공간과 다양성을 만들어주는 경제로 도시가 구성되어야 소위 회복력과 탄력성을 갖는 리질리언스라고 생각합니다.

❖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경제**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 조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했고 그가 그린 도시경제의 모습은 회복탄력성을 가진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습

❖ 그래서 도시는 인간의 자연적 거주지이며 사람들은 자연의 과정과 복잡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 도시경제에 대한 그의 이해는 자연생태계와 유사한 자발적 도시경제로서,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로 대표되는 이윤경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심과 분석에서 분석에서 제외되는 **지역기반의 작은 경제,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하는 도시경제**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도시의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는가. 이곳 창동·상계의 49층 빌딩의 개발로 아파트, 집값이 상승합니다. 이에 따르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토론했고, 어떤 대안을 만들었는지 걱정됩니다. 그것은 경제가 아닌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뉴노멀을 하겠다는 생각이려면, 뉴노멀의 경제 핵심이 뭘겠습니까? 분권, 분산, 연결, 참여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소유, 재생에너지, 로컬푸드, 공유경제, 협동의 경제, 사회적 경제 등 생태적 전환을 경제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고, 바로 그것이 그린 뉴딜 핵심입니다.

그것이 로컬 뉴딜이며 일자리도 그것과 연결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

'포스트 정상과학'의 시대,
뉴노멀 경제학 (New Normal Economics)의 핵심개념

- ❖ 핵심개념(key concepts)은 **분권(decentralization), 분산(dispersion), 연결(networking), 참여(participation)**
- ❖ 공통의 전략은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community resilience)를 통한 화석연료 고갈, 기후변화, 고용없는 성장, 고령화에 대응
- ❖ 주민소유 재생에너지 생산, 로컬푸드, 공유경제, 협동의 경 (Jerome R. Ravetz, 2006)
- ❖ 폐기물이 자원이 되고 생태적 고려가 경제적 효율성이 되는 사고의 전환이자 혁신적 전환전략 필요 (Waste is food! Waste is Wealth! Green is Gold!)

실제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독일의 프란츠알트는 생태적 경제기적이라는 책에서 에너지전환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야되고,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생태적전환 걱정 따로, 여전히 성장하자, 여전히 개발하자,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이상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에서 알트는 석탄 발전소 짓지 말자고 하면서 전기 값이 너무 올라가니 원전이 깨끗하다는 주장에 대해 자 페스트 무서우니까 그러면 콜레라 도입하자는 이야기라며 반박했습니다.

25

프란츠알트의
생태적경제기적

“에너지 전환. 이를 통한 지구 기후의 구원은 가능하다. (...) 태양 에너지 혁명은 21세기의 고용창출 정책을 위해서 현재의 자동차 산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다... 앞으로 에너지의 전환만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Franz Alt, 1997. 박진희 옮김, 2004: 81-82).

“원전은 대안이 아니다. 독일의 환경 정책가 프란츠 알트의 말은 원전 불가피론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대답을 돌려주었다.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반대하는 사람은 원자력 이용을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곤 하는데 귀신을 쫓기 위해 귀신의 왕을 이용해서 막아내자는 말인가? 페스트를 반대하는 사람은 콜레라를 찬성해야 한다는 말인가?” (Franz Alt, 1997. 박진희 옮김, 2004: 57).

그래서 고용없는 성장과 생태위기는 같이 가는 것, 같이 풀릴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그것이 저는 경제 생태적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26

- ❖ 생태적 대안에는 경제(학)적 고려가 통합되어야 함. 생태효율은 미래의 경제학이 되고 생태학적 고려는 경제의 장기 효율성을 뒷받침하게 됨 (Franz Alt, 1997. 박진희 옮김, 2004: 201).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는 그것이 고용창출과 연결되는 것이 꼭 필요' (나오미 클라인)
- ❖ 제4차 산업혁명이 운위되고 '노동의 종말'과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현실도 전환을 위한 기회를 제공.
- ❖ 프란츠 알트가 강조한 대로 '고용 없는 성장과 생태 위기는 우리가 조망할 수 있는 시간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이고 동시에 함께 해결이 모색될 문제.
- ❖ 독일의 경우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독일 환경산업의 피고용자(135만명)는 이미 자동차산업의 피고용자(거의 100만명)보다 더 많음 (Franz Alt, 1997. 박진희 옮김, 2004: 15-18).

서울시에서도 많이 초청했던 올리히 벡이 말한 위험 사회는 자연재해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고용없는 성장, 그리고 노동의 종말을 이야기 한지도 제가 대학원시절부터 들었던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7

플타임 고용이 이미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에 어떤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것인가. 민간 대기업을 유치했다고 쳤을 때, 정년을 하면 몇세죠? 사실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40대 후반에 이미 다가왔습니다. 수명이 80세면 그 이후에 3~4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곳 아우르네에 50플러스 북부 캠퍼스가 들어오는데, 20대도 취업이 안되는데 4·50대 중장년층들을 다시 정규직 플타임의 민간의 대기업을 취업시키기 위한 시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외에도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사실 어마어마한 고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8

플타임 고용 시대의 종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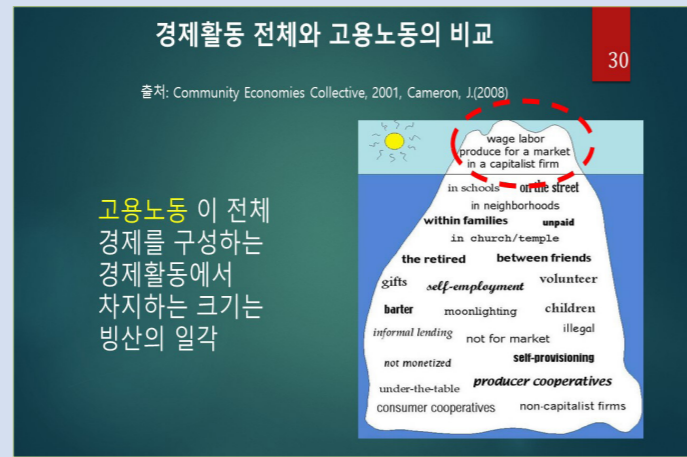
- ❖ 현대사회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고용의 종말 (end of employment)'을 향해 다가가고 있으며 그동안 너무나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플타임(full-time) 고용사회는 이제 하나의 신기루** (Rifkin, J. 1995)
- ❖ 산업사회에서 보이지 않던 고용불안정과 저고용이 새로운 위험으로 등장, 완전고용과 실업이라는 이분법적 세상에서 만들어진 처방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저고용에 따른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으로 전면화 (Beck, U.,1997; Beck, U. 2005)

우리가 실제로 고용 일자리 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임금이라는 것은 고용관계를 통해서 급여로 주고 받아지는 수면 위에 있는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수면 아래에 빙산의 나머지를 구성하는 것이 수많은 경제활동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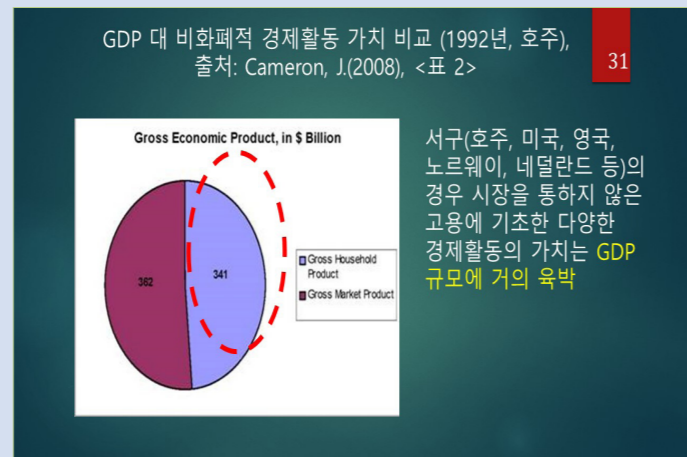
29

고용없는 성장, 플타임 고용의 종말
Jobless growth & End of full-time Emplo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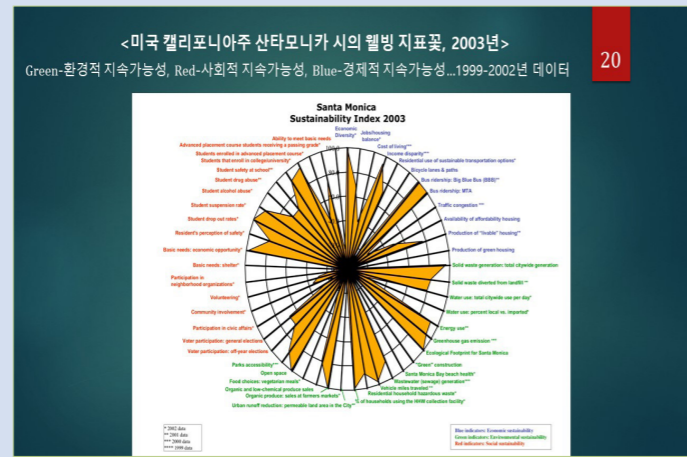
저 경제활동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지역에 중요하고, 의미 있고, 지역을 유지하고 지속시켜줌으로써 공동체가 유지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이를 추정하면 거의 GDP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호주의 사례지만, 이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저것은 화폐로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현된 가치가 아니라 추정하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풀타임 고용의 시대가 끝나고 슬퍼하지만 말고 풀타임 고용이 좋았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비판 경제학에서는 그간의 노동이 얼마나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장시간이루어졌는지, 그게 지루하니까 임금을 올리거나 레저를 들고, 일과 노동에 대한 워라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적극적 답은 아닙니다. 일해서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즐거움도 얻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로컬에서 일을 새롭게 구성하고 조직해서, 의미있는 일자리를 다시 의미있는 활동으로서 일을 재구성할 수 있다면, 한꺼번에 푸는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경제의 회복력과 자족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의 로컬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협력은 다 나름대로 의미있었는데, 조금더 큰 비전을 갖고 로컬의 협력, 동북4구 차원의 협력을 위한 상상력을 모아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저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입니다. 이분의 책은 우리나라에서 몇 10만권 읽혔죠.
정의란 무엇인가, 저는 사실 그 조용필의 노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제목으로 처음에 생각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읽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분은 공화주의 철학자고 정치 철학자인데, 경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의 이런 확대가 민주주의의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커지고 경제가 크면서 국가도 위축되고 시민사회는 더 위축되고,

- 33
1.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검은 백조(Black Swan)사건이기도 하고 흰 백조 (White Swan)사건이기도 하다.
 2. 문명적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교체가 필요하다.
 3. 도시의 전환이 필요하다.
 4.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경제의 회복력과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
 5. 서울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구상은 지속될 것인가?
 6. 서울동북 4구에서의 지역협력, 10년
 7. 무엇을 위해 협력할 것인가: 지역순환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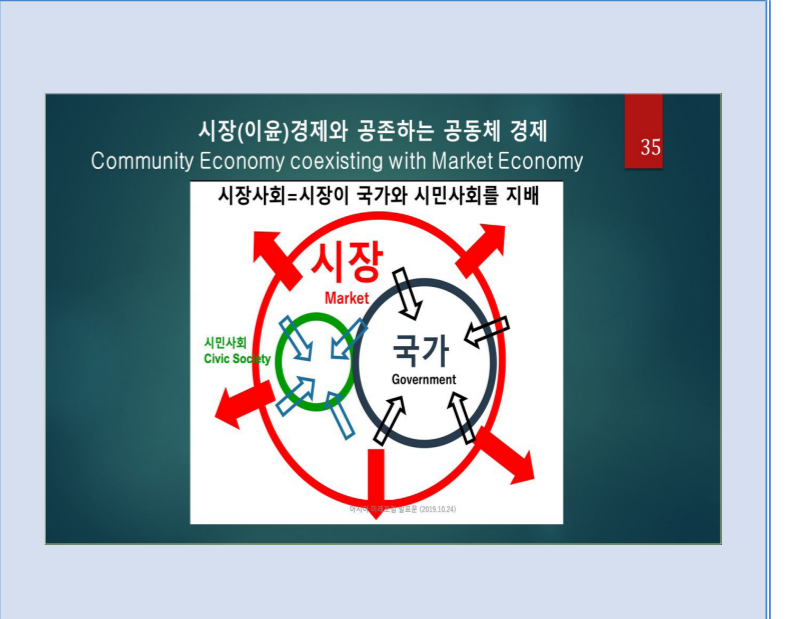
지역(공동체), 지역경제, 민주주의
Community, Local Economy, and Democracy

34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WHAT MONEY CAN'T BUY



지역은 더 쪼그라드는 상황을 가장 우려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면 지역이 활력을 갖고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지역경제를 통해서 뒷받침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분의 강의를 듣고 있고, 최근에는 이분의 책만 나오면 번역됩니다.

36

- ❖ 미국의 마이클 샌델 등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민주주의, 공동체, 지역과 노동**을 상호의존적인 개념으로 이해.
- ❖ 오늘날 **시장주의**가 전면화된 사회에서 지역과 고용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경향에 대해서 공화주의 철학자들은 심각한 우려의 시선을 보냄 (Sandel M., 2012).
- ❖ 지역(공동체)의 유지와 안정은 민주주의에 중요한 전제.

데이비드 코튼은 스탠포드 경영대학 교수이자 아시아 개발에 자문을 40년간 해왔습니다. 한국은 성장이 많이 된 나라여서 항상 인천공항에만 들러서 가셨는데, 얼마전 서울에 불렀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새로운 경제의 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컨설팅을 해주면서 스탠포드의 뛰어난 경영 기법이나 이론을 배우면 아시아의 개도국들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라 반대로 문제들은 자기들의 서구의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로마클럽 회원이기도 한데, 이분의 여러 저서 중 저는 이번에 터닝포인트라는 책을 번역해서 한국어 서문을 쓰는데, 대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익숙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데이비드 코튼 교수 (로마클럽 정회원, 스탠포드 경영학 박사, 40여년간 아시아 개발 컨설턴트)

The New Economy: Living Earth System Model:
로컬 푸드, 마을기업, 에너지 자립, 공정무역, 보행친화 도시, 중산층 보호, 투기금융자본 규제, 커뮤니티 은행 - 반 세계화

David Korten's 10-Point Recovery Plan

1. Local and national food independence
2. Local ownership of enterprises
3. Energy independence with renewables
4. Balanced and fair trade relations
5. Walkable, bikeable communities with efficient transit
6. Strong middle class society – rebalancing wealth distribution; access to health care, education, etc.
7. Make Wall-Street's casino unprofitable – transactions tax, responsible capital ratios, surcharge on short-term gains
8. Community banks – reverse mergers and acquisitions
9. Money created by the federal gov't, not bank-issued debt
10. Federal government control of Federal Reserve – stabilize money supply, discourage speculation, contain housing and stock market bubbles

David Korten, Agenda for a New Economy, 2009

로컬푸드, 마을기업, 에너지자립, 공정무역, 보행 친화 도시, 중산층 보호, 투기금융자본 규제, 커뮤니티 은행 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 단편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던 것들이 로컬의 경제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엮고,

39

“생태적 전환은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 현재 부딪힌 생태위기에 대한 필수적 응답의 결과물이다. 생태위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도시의 생태적 전환은 도시의 회복탄력성/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복탄력성/복원력이란 “근본적인 구조, 기능, 내부피드백을 유지하면서 혼란을 견디는 시스템 능력이다” (William E. Rees, “Thinking Resilience,” in Richard Heinberg and Daniel Lerch, eds., The Post Carbon Reader: Managing the 21st Century’s Sustainability Crises, 2010).

“공동체 건설, 사회적 경제, 에너지 분산, 재생에너지 사용, 공동체지원산업 등 모든 프로그램은 도시의 회복탄력성/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체가 음식, 주거, 교육, 교통, 보살핌을 스스로 해결할수록 그 공동체는 스스로의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하며 잠복한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Michael Shuman, Local Dollars, Local Sense: How to Shift Your Money from Wall Street to Main Street and Achieve Real Prosperity, Community Resilience Guides, Kindle Edition, 2010)

어떤 비전으로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더 넓게 보고, 깊게 보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위험사회의 대안, 로컬의 강화
Local resilience on Climate Crisis and Social Risk

40

- ❖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은 특정지역에 특정 산업과 시설을 집중배치하고 예산을 투입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식
- ❖ 기후위기에 따른 임박한 사회적 위험에서 지역경제의 자족성과 회복성을 높이기 위한 **순환의 규모를 지역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scale-down)**이 필요.

이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도 로컬의 미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83

- 경제위기에 사회적 경제가 강하듯 기후위기에는 로컬이 대안이다. 여기서 로컬이라 함은 권역, 지구, 마을 등 여러 차원을 두루 포괄해서 지칭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지구적 범위에서 원거리 이동을 통해 조달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이것이 기후위기가 응변적으로 말해주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가치순환의 한계이다. 더욱이 **무역에 필수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유무역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지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2018).

공동체 경제를 품은 지역순환경제에 대한 구상이 비현실이거나 꿈같은 이야기라 비판받을 수 있음. 그러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말처럼 글로벌 경제는 각국 차원에서의 거대기업들에 제공되는 막대한 **조세혜택과 보조금,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확보되는 온갖 형태의 **외부성(externalities: 외부경제·외부불경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한다면 분권화되고 분산된 지역경제보다 꼭 효율적인 경제라 말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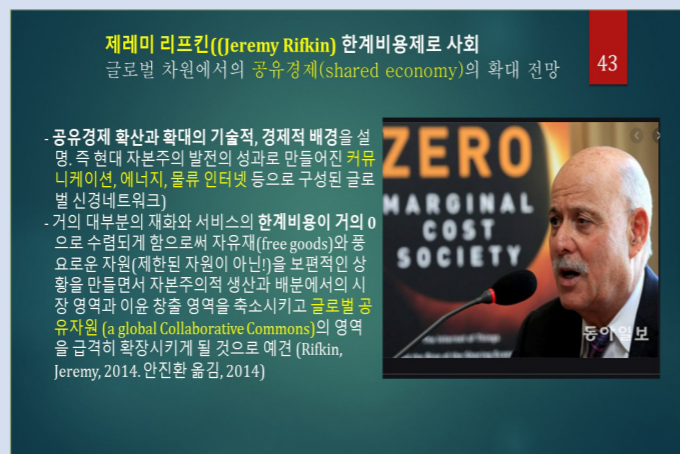
세계 로컬의 날도 행사를 했고,



전주에서 5년째 개최되는 행복의 경제학의 주제도 지역화였습니다. 슈만이라는 분은 지역금융을 이야기했고, 지역일자리, 지역화폐 도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기술적기반이 있다고 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말한 한계비용제로 사회에서의 공유경제는 협력적 공유경제, 그리고 우버모델과 같은 기업의 공유경제와 같은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모델이 아니라. 협력적인 사회적 경제방식의 공유경제의 기반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에너지 분산을 한다면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로 연결해주는 그 기술들이 모두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로컬 단위의 분권화되고 분산된 경제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거대 기술을 가지고 거대 시설을 만들면 관료주의가 나오고, 민주주의가 손상됩니다. 예를 들어 원전을 만들 경우 거대한 시설로부터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야합니다. 송전탑을 옮기고, 거대한 도시에 전기를 제공하고 남은 전기는 바닷가에 만들어진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담수화시설에도 얼마아마한 에너지를 씁니다.

이러한 거대시설 프로젝트는 결국은 끊임없이 로컬의 반대방향으로, 전문가·관료·거대 자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끊임없이 서로 연결해 축적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방법으로 가야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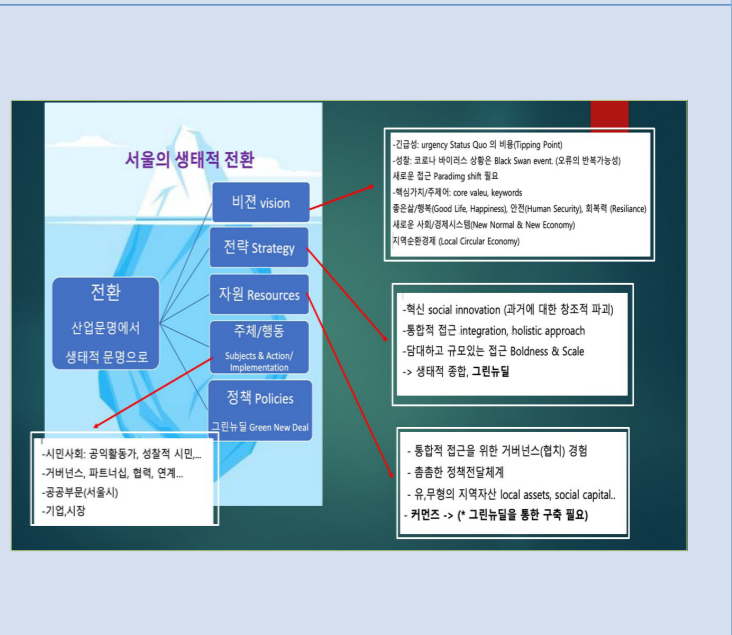
조금 원론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저희들이 공감하고 합의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서울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생태적 전환을 제안도 했고, 권유도 했고, 논의도 했고, 교육도 했습니다.

44

-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결합을 통해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 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대안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고 선언
-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와 구별되는 협력적 공유경제의 핵심 경제 단위로 사회경제의 구성요소들을 제시
- 그의 제3차 산업혁명 논의는 '제4차 산업혁명' 논의와 달리 경제 산업구조 재편과 고용 전략 수준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 분산과 사회적 권력의 분산이라는, '이중의 의미에서의 파워 투 더 피플(power to the people)'에 대한 기획임을 강조.
- '지역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보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분권화된 '정치 시스템'과 보다 분산된 공동체,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가 지탱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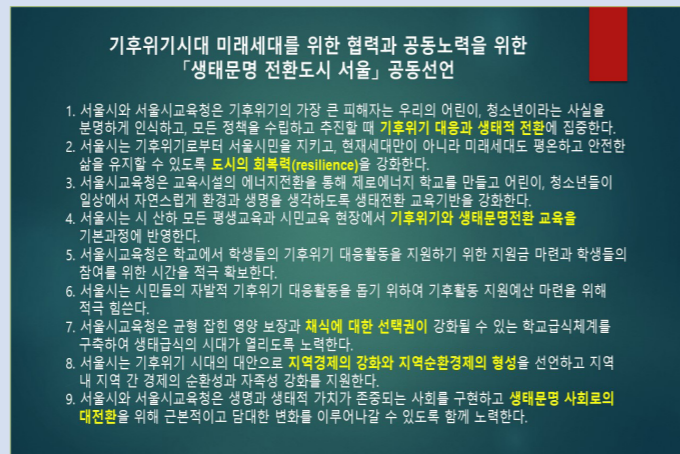
- 45
1.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검은 백조(Black Swan)사건이기도 하고 흰 백조 (White Swan)사건이기도 하다.
 2. 문명적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교체가 필요하다.
 3. 도시의 전환이 필요하다.
 4.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경제의 회복력과 자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5. 서울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구상은 지속될 것인가?
 6. 서울동북 4구에서의 지역협력, 10년
 7. 무엇을 위해 협력할 것인가: 지역순환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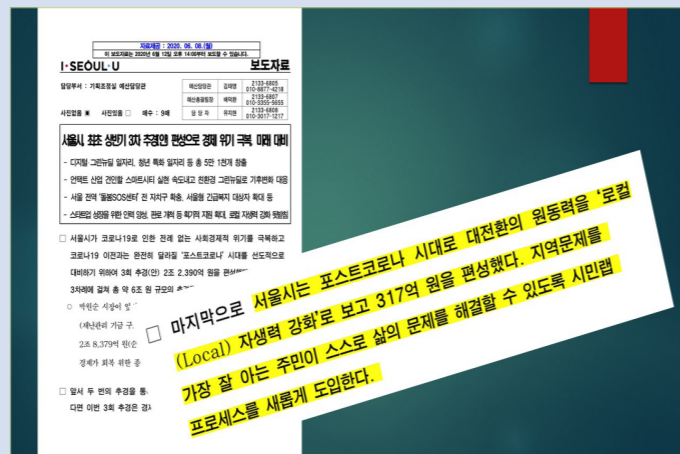
작년에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생태적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 안에 도시의 회복력, 채식 선택권, 지역 순환경제 등이 담겨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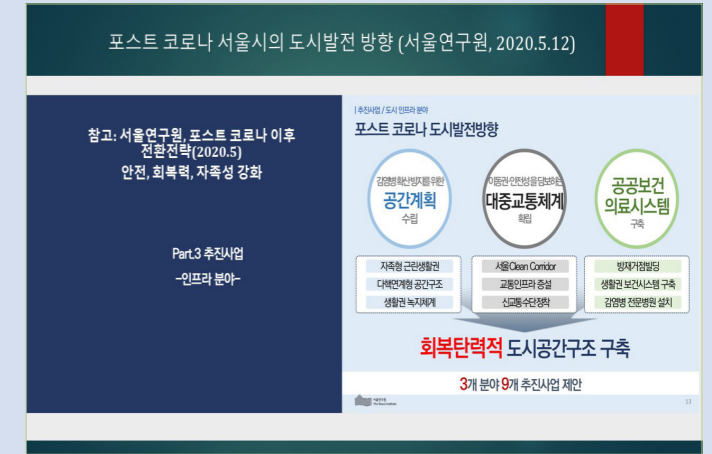


올해는 지난 6월쯤 그것을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그린뉴딜 논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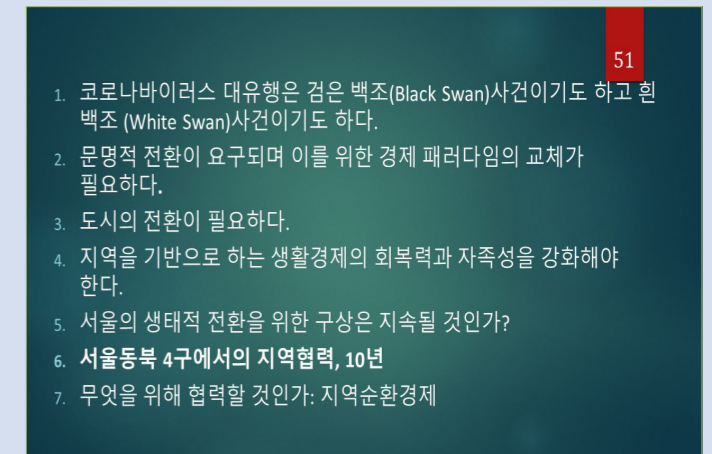


서울연구원의 보고조차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는 회복탄력적 도시공간 구조를 재구축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을 서울시에만 요구할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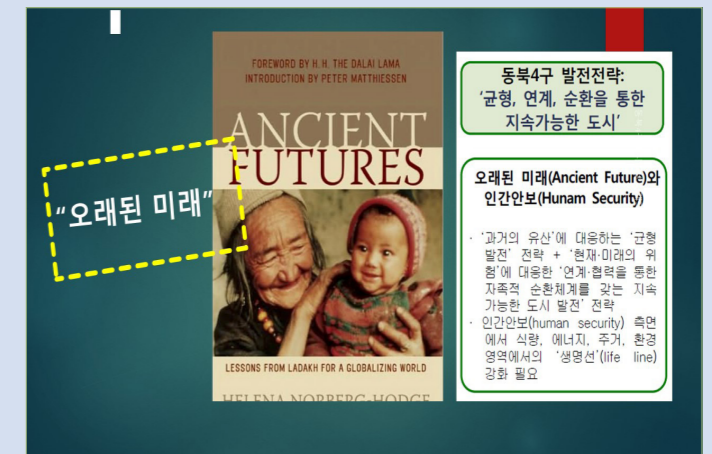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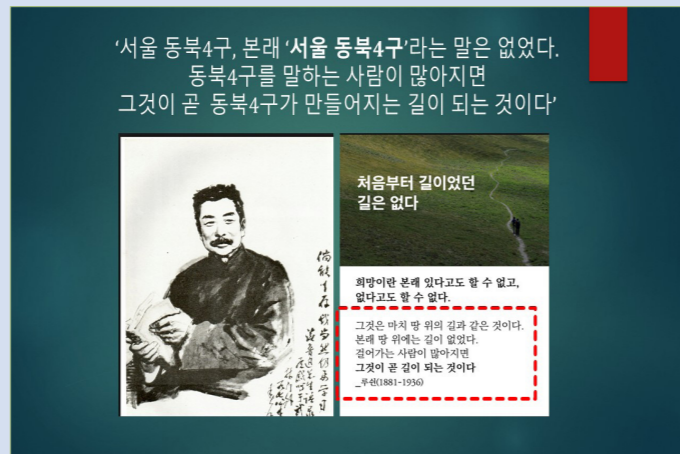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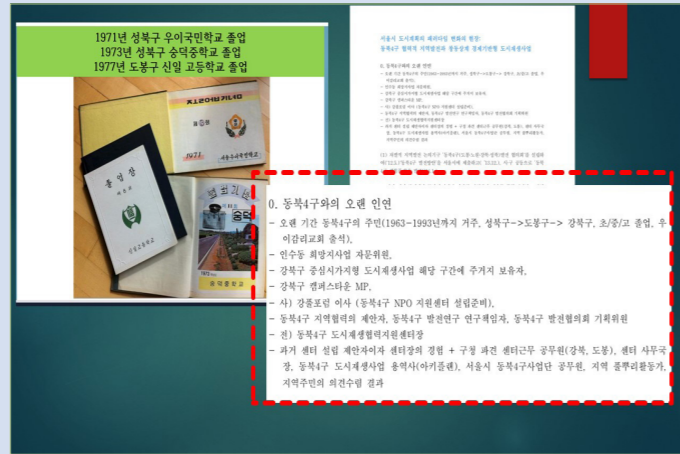
그래서 답을 찾고 제시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런 행사, 이런 자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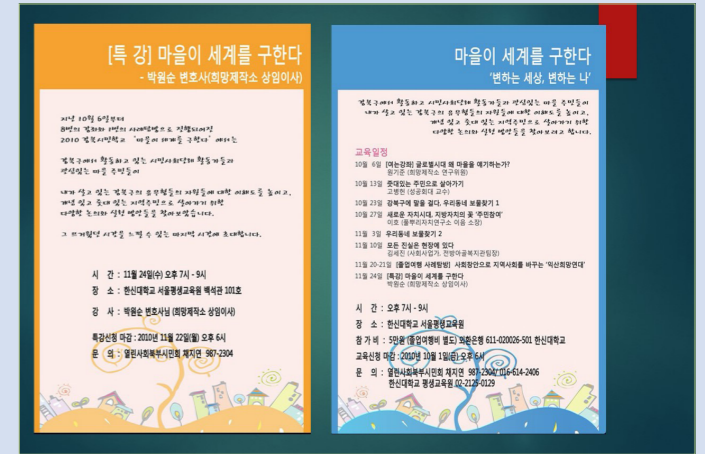
제가 처음 동북4구를 연구할 때 거의 10년전인데, '균형,연계,순환을 위한 지속가능도시'로서의 발전전략의 컨셉을 오래된 미래라고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안보를 들었습니다. Human Security, 이것을 안보라고 하면 군사적, 정치적 느낌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으로서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식량 에너지, 주거, 환경영역에서의 라이프라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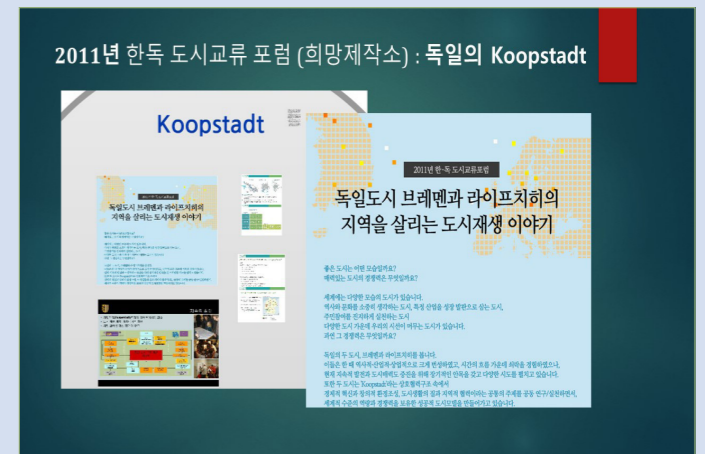




동북4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위해 제가 10년전에 발표한 자료들입니다.



그때 평생교육원도 만들고, 콘퍼런스도 진행했습니다.



그때의 핵심은 없던 것을 새롭게 창조했던 것은 아니었고, 독일의 도시 계획을 참고하였습니다.

Koopstadt의 목적:

- 3개 도시의 개발계획이 당면하고 있는 미래의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 개발을 지원
- 행정기관 내의 담당자들을 3개 도시 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양성
- 도시개발계획 실행과정에 나온 선기의 경험들을 지역 및 초도시적 차원에서 나눔

그러면서 지역협력이 필요하며,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심포지움도 진행했습니다.

지역협력의 필요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월경적(cross-border)** 특성을 지닌 정책의 필요성 증대

공공서비스: 지역 간 전략적 협력과 제휴를 통한 역량의 결집과 효율성 제고
 경제: 규모-범위-연결의 경제를 통해 물리적 집적을 넘어서는 경제발전 추구
 시민사회: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순환 체계 형성
 생활정치: 수평적 연계를 통한 문제 해결과 민주주의의 증진

- 2009년 초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지역간 연계와 협력'을 주요수단으로 제시

5. 서울 동북4구 지역협력 사업을 위한 제도/기구

지역협력을 위한 기구와 제도 (EU)

4 자치구 공동의 중간지원조직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공동의 지역경제순환 구조

지역경제순환센터(사제) 신축 완주

서울시를 설득할 때에는 2차심포지움에 서울시장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1월12일 서울시장 초청 동북4구 발전을 위한 제2차 심포지움

서울시장 초청 2차 심포지움

지난 두 차례의 심포지움에 이은 오늘 이 행사가 서울 동북부 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

지방자치가 강화되면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못되는 곳은 계속 악순환이 심화됩니다. 예를 들어 청담동에는 전철출입구가 12개라면, 창동에는 4개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 지방자치가 강화될수록 심화되는 지역간 격차의 딜레마 지적

자치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보다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더 심각. 빈곤 자치구는 주민들의 이탈(exit)을 초래하여 자치구의 빈곤화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vicious cycle)**구조가 고착될 가능성 높음

-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는 공간의 서열화, 계층화를 결과하여 주민간 위화감과 반목을 유발

이 악순환 메커니즘을 들었을 때 당시 시장께서 좀 충격을 받으신거 같습니다.

2) 지역격차의 악순환(vicious cycle) 구조에 대한 광역지자체(서울시)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 요청

그래서 서울의 동북4구 서울 강북의 발전에 기여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놓고,

3) 임박한 사회적 위험(저성장, 고령화, 고용없는 성장,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미래 서울의 발전전략의 필요성 강조

2. 21세기 도시발전/변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염두에 둔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조성

토목, 건축 위주의 개발전략,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보다는 장기적 전망 하에서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관광과 연결시키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지역 발전전략

대안을 만들어내는 지역의 핑크 탱크들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6) 임박한 일회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 지역협력의 기제가 필요함을 제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지역여론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비현실적인 공동계획 등으로 협력사업이 지속되는 데 장애물이 많을 것임. 이러한 어려움이 다시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강화시키기도 함

성공적인 지역협력을 위해서는 지역간 정보교류, 협력아이템 발굴,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유럽연합(EU)의 Interreg 프로그램이나 스웨덴-덴마크의 웨레순드 지역의 협력프로그램은 현안 대처방식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고려

동북4구 연구(2013): 발전전략 7): 지역 Think & Do Tank 지역특성에 입박한 기초한 프로그램과 실행주체 양성

서울 동북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센터 설립 제안

서울 동북부 지역 차원의 장기적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시범사업 실행 등과 자치구간 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와 정보교환, NPO지원과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역할을 하는 **Think & Do Tank**

4자치구, 지역의 대학들,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설립 네트워크 방식으로 설립, 중앙정부 부처나 서울시로부터의 용역과제와 위탁과제 수행으로 운영재정 충당

두번째 이야기: 동북4구의 변화, 살펴보기

그 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활권 도시 계획이 만들어져서 권역, 동북4구 권역이라는 것들이 공식적인 제도와 서울시 계획안에도 들어갔습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 | 동북권 |

도시(에) 맞게 계획보안

동북권 생활권 도시(에) 맞게 계획보안

서울시 전체 인구 약 1,000만명, 동북권 인구 약 327만명, 상계지역생활권 인구 약 65만명

계획범위: 서울시 전체 (면적 약 605km²)

계획내용: 서울 전체를 아우르는 "2030 서울생활권"을 공간적으로 구체화, 권역 및 지역생활권 구분을 통해 주민생활 기반시설 확충

생활권명	면적	인구	자치구
도심권	56km ²	360만명	종로구, 중구, 용인구
동북권	171km ²	320만명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북권	71km ²	122만명	관악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	163km ²	317만명	영등포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	146km ²	218만명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그림 7 권역생활권별 구분

그리고 다음으로 발표할 오대중 팀장님의 내용에서는 그동안의 서울시가 해온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기반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들이 눈으로도 잘 확인 되는 내용들로 나올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발전의 길이 경합하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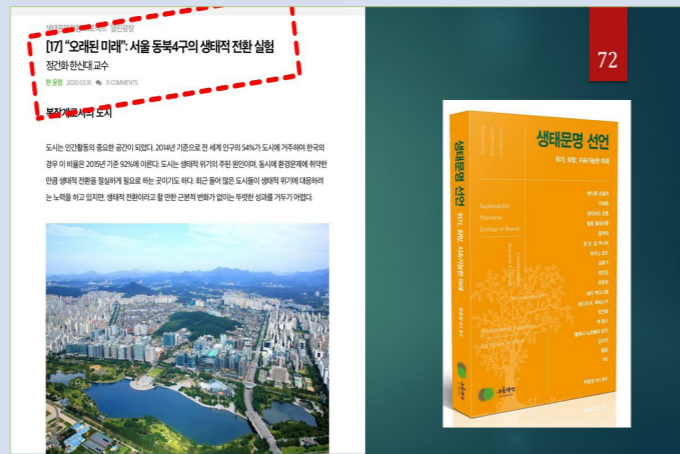
동북4구 발전의 길, 경합하는 두 길 ?

Tension
the Research Report vs. "Happy 4 Distric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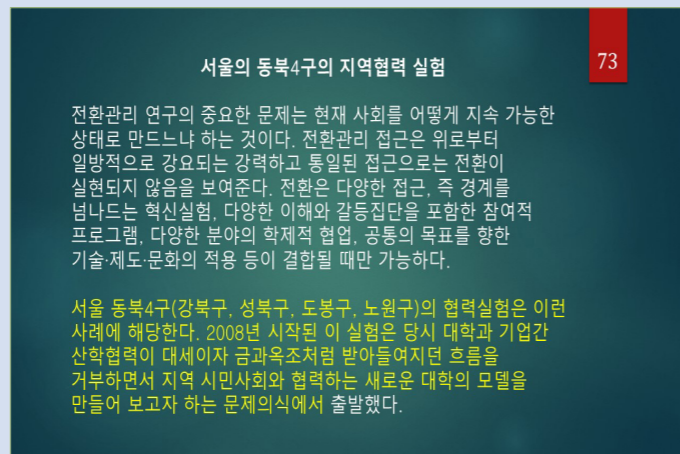
통상적인 과제 개발사업이 안되게 하 기위해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채워지 지 않고 있는 답들, 묻어지지 않는 질 문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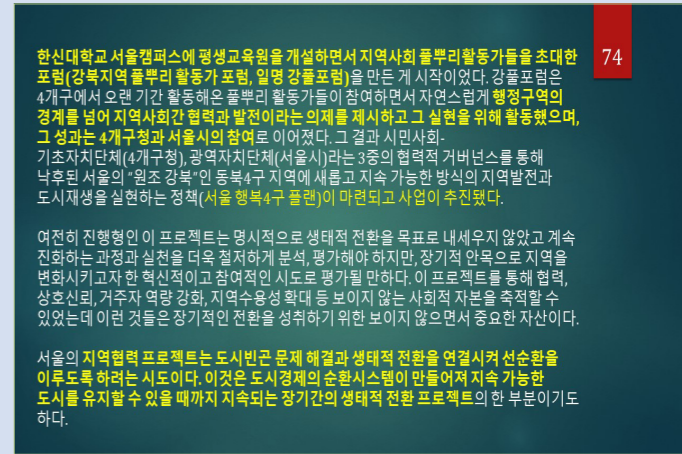
그런 실험을 가지고 이번에 책을 썼 습니다.다음주 화요일에 나오는데, 동북4구에 그동안 우리가 하려고 했 던 결국은 생태적 전환을 위한 실험 이었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 성과가 많았으면, 생태적 전환의 모범적인 지역으로 서울 동북4구가 소개될 수 도 있겠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데 아쉽게도 그런 수준은 훨씬 못 미 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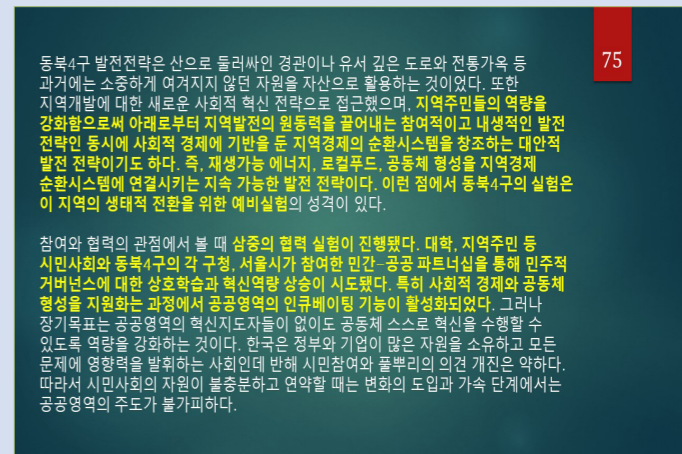
3중의 협력이라고 해서, 시와 4개 구 청, 시민사회의 협력의 실험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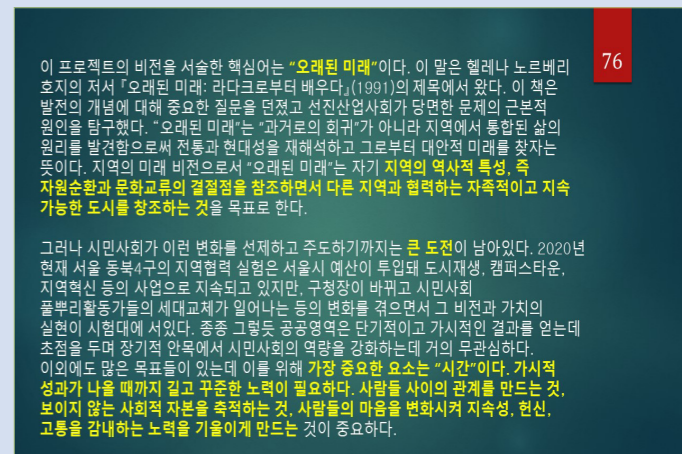
오래된 미래를 가지고 컨셉으로 했는 데 너무나 많은 도전이 남아 있습니 다.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 계속 흘러가는데, 시간을 압축적이 고 집약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4구 발전전략은 산으로 둘러싸인 경관이나 우서 깊은 도로와 전통가옥 등 과거에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던 자원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또한 지역개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혁신 전략으로 접근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끌어내는 참여적이고 내생적인 발전 전략인 동시에 사회적 경제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의 순환시스템을 창조하는 대안적 발전 전략이기도 하다. 즉, 재생가능 에너지, 로컬푸드, 공동체 형성을 지역경제 순환시스템에 연결시키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다. 이런 점에서 동북4구의 실험은 이 지역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예비실험의 성격이 있다.



이 프로젝트의 비전을 서술한 핵심어는 "오래된 미래"이다. 이 말은 헬렌 노르베리 호지의 저서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1991)의 제목에서 왔다. 이 책은 발전의 개념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졌고 선진산업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탐구했다. "오래된 미래"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지역에서 통합된 삶의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전통과 현대성을 재해석하고 그로부터 대안적 미래를 찾는 뜻이다. 지역의 미래 비전으로서 "오래된 미래"는 자기 지역의 역사적 특성, 즉 자원순환과 문화교류의 결실점을 참조하면서 다른 지역과 협력하는 자족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7

1.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검은 백조(Black Swan)사건이기도 하고 흰 백조 (White Swan)사건이기도 하다.
2. 문명적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교체가 필요하다.
3. 도시의 전환이 필요하다.
4.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경제의 회복력과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
5. 서울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구상은 지속될 것인가?
6. 서울동북 4구에서의 지역협력, 10년
7. 무엇을 위해 협력할 것인가: **지역순환경제**

지금이라도 이런 상황을 맞아서, 지역 순환경제라는 개념을 지역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넣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전환마을처럼 포장지 없는 제품들이 생산될 수 있게 하고, 이동거리를 축소한 소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의류, 패션분야는 봉제, 자영업자들 많은 지역에 친환경적이고 재생가능한 폐가죽으로 자동차 시트 등 디자인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공급식 로컬푸드, 먹거리 순환경제, 도농교류도 가능할 것이고, 트리플래닛 사례처럼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정말 탄소배출을 줄이는 만큼 기업들이 사회공헌을 해서 나무를 심는 등 연결되고, 연동시키는 대안이 있습니다. 독일의 작은 마을이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보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의 공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78

지역 순환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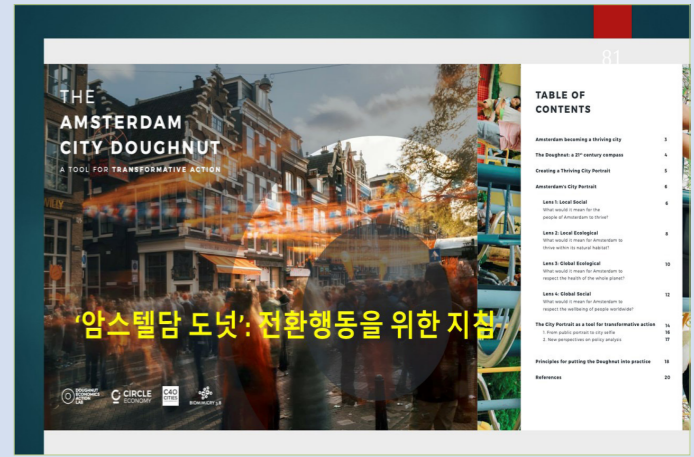
- ❖ 순환경제는 지역 내 순환, 인간과 자연의 순환, 경제의 순환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지역순환경제는 로컬단위에서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풀어나가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맞서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생태적 경제발전전략
- ❖ 경제의 순환이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순환경제가 강화되는 것이 생태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지역 발전 패러다임이 되어야 함
- ❖ "작은 것이 아름답다"(슈마허): 로컬경제, 중간기술(적정기술)...의 공간범위
 - 전통시장- 포장재없는 제품들의 생산-소비 (전환마을, /트트네스)
 - 의류/패션산업: 친환경 윤리 패션 -> 동북4구의 섬유, 봉제산업 인력 활용(모어덴, 오르그닷, 프라이탁, 파타고니아...)
 - 공공급식: 로컬 푸드, 먹거리 순환경제, 도농교류
 -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개인업, 스타순, 숭가꾸기 (트리플래닛)
 - 태양광, 풍력 에너지: 독일 세나우, 덴마크 (햇빛발전협동조합, 블록체인 기법)

앞으로의 '협력'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갖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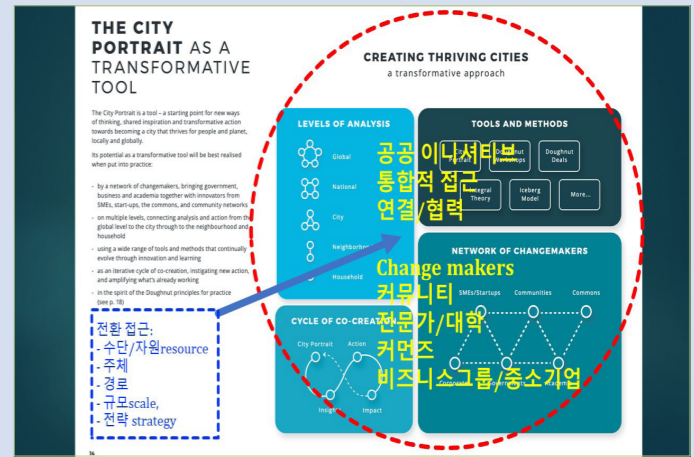
외국의 많은 사례들이 있고 많은 도시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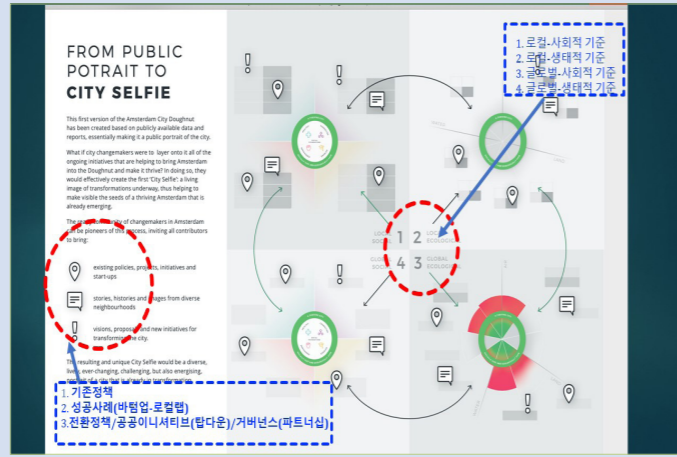
암스텔담의 전환행동을 위한 지침과 보고서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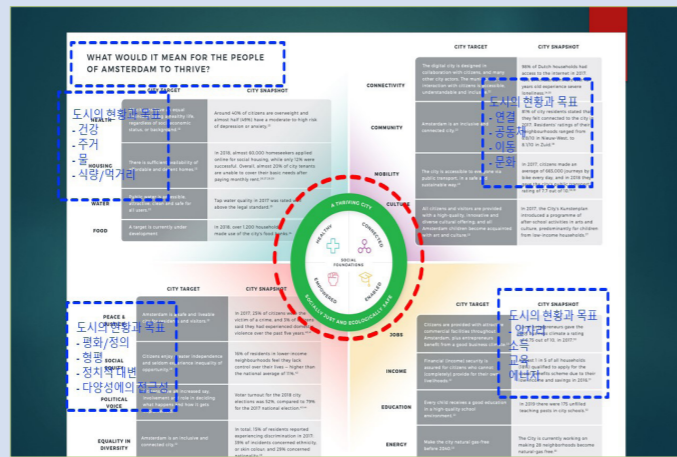
체인지메이커, 혁신가들, 커뮤니티, 전문가/대학, 공유경제, 커먼즈 그룹, 비즈니스그룹 이 모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공 이니셔티브, 거버넌스로 하는 부분, 민간에게 맡기는 부분 등 기준에 하던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인큐베이팅하는 부분을 다 나눕니다. 그것을 도넛경제학을 들어 행성적 한계라 부르는 생태적 고려까지 담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안에 당연히 일자리, 소득, 교육 에너지가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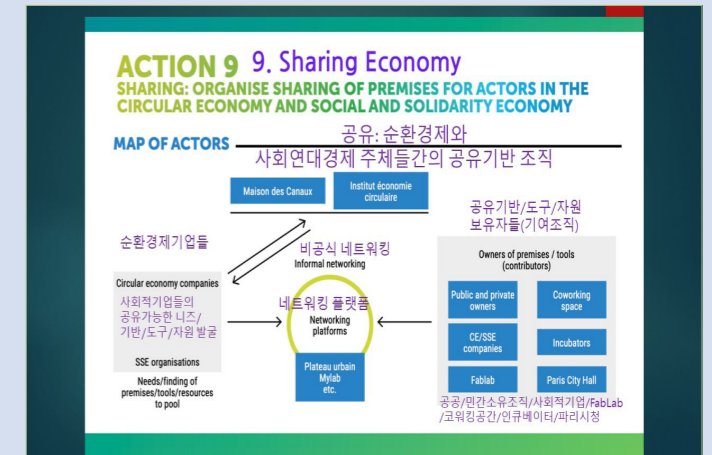


파리도 2017년에 순환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짜서 광역과 기초 자치구를 위한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공유경제는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톨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큰 경제 시스템이 될 수 있구나라는 데에 대한 확신이나 상상력이 없는 것뿐입니다.



성남시만해도 이것을 연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만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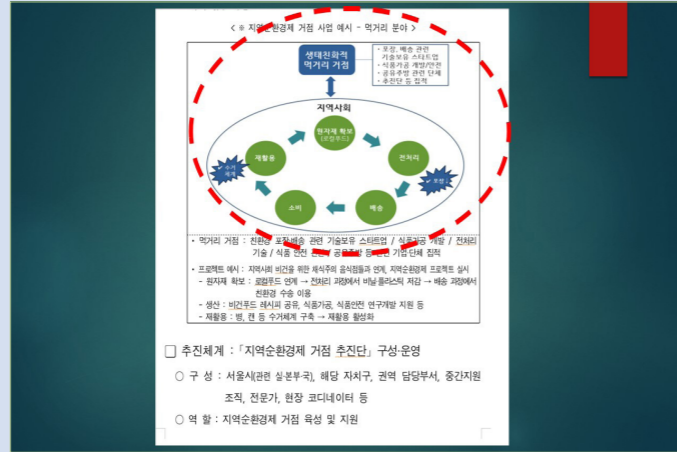
이것은 상상으로 만들어 본 것이지만, 동북4구의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생산과 유통과 소비와 투자라는 영역을 놓고 마을, 동, 자치구, 광역단위로 이 매트릭스를 채우는 시도를 해야합니다.

도시재생의 핵심성과는 자급입니다. 언제까지 서울시 자원이 투입되고, 공공의 지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몰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는 어떤 지역 자산들을 유·무형으로 축적했는지에 대해 사실은 굉장히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고, 이중에 한칸이라도 우리가 채울 수 있는지 고민해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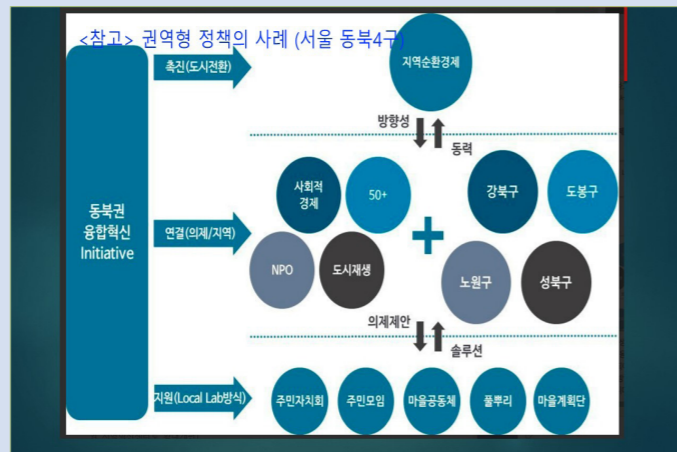
지역 순환경제 정책모델 Matrix

	생산	유통	소비	투자
자원순환 (폐기물)	마을	동	자치구	광역
에너지	자치구	동	동	광역
커뮤니티케어	동	동	동	광역
마을관리 (그린리모델링)	동	동	동	광역
모빌리티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먹거리	마을	동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가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유고하고, 거버넌스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까 인삿말한 이상훈 의원이라든가 서울시회의원, 교육청, 서울시의 관련부서와 함께 가야합니다. 동북4구 차원에서 급식을 가지고 먹거리 순환경제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논의를 사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하고도 연결합니다. 의식주의 하나인 먹거리로서 공공급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 건물, 교통,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4구도 그 영역을 가지고 순환경제를 큰 우산과 같이 만들고 동북4구 행정협의회, 지역의 시민사회, 마을관리소, 새롭게 도입되는 그린뉴딜의 여러 정책관계자, 50플러스캠퍼스, 무중력지대, NPO지원센터 등이 모여 그동안의 지역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논의를 함께 하여 각자가 중간 지원 조직이자 각각의 거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노력이 헛되게 아니었다면, 저는 그런 성과가 분명히 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1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와 시민참여

오대중 |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발전기획팀 팀장

영상보기



수도권 동북부 320만의 일자리 문화 중심지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대해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거점별 실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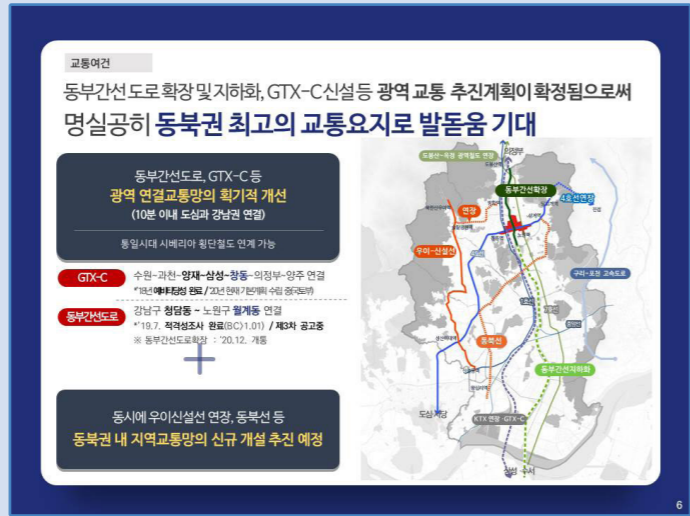
말씀드릴 순서는
현황 및 여건, 그간 주요 추진경과, 비전 및 추진전략, 거점별 실행계획 순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현황 및 여건, 그간 주요 추진경과, 비전 및 추진전략, 거점별 실행계획 순입니다.

먼저 현황 및 여건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있는 환승주차장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약 38만 제곱미터의 저이용중인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적인 입지여건을 보면, 서울도심과 수도권 동북부 주요 도시를 연계하는 동북권의 입지적 중심지이며, 서울 3도심 못지 않은 공항접근성 등으로 향후 동북권의 일자리와 문화, 생활의 중심 역할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 지역의 **교통여건**은 현재 공사중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21년 완료되고, 삼성IC에서 월릉IC까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추진되고, 창동역을경유하는 GTX-C 노선이 연결되면, 이 일대는 동북권 최고의 교통요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연·생활환경** 측면에서도 국가 하천인 중랑천과 북한산, 수락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주변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의 종합대학과 연간 3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전국 최다의 대학과 풍부한 인적·기술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스마트 기술기반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과입니다.



상위계획으로, 2014년 서울시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서울플랜을 통해 창동·상계일대를 서울시 7대 광역중심지의 하나로, 2017년 서울생활권계획에서는 동북생활권의 최상위 중심지로 설정하여, 이 지역을 광역적 고용창출의 거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서울시 최초의 협력적 지역발전 모델인 **행복4구 플랜**을 발표하였고, 2015년 2월에는 낙후된 배드타운을 동북권의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어서 **2017년 3월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활성화지역지정 이후 많은 전문가의 자문 및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법정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현황입니다.

환승주차장부지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약 38만㎡의 대규모 이전적지 및 기성상업지역 등을 포함하여 약 98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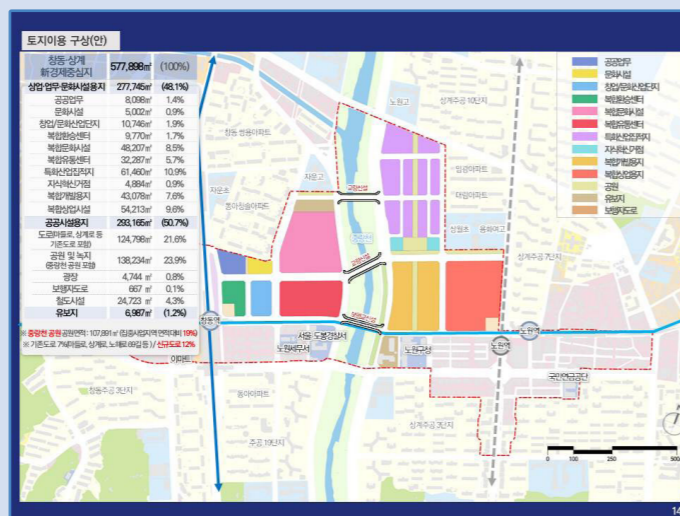


도입기능으로서 창동역일대는 복합 문화·여가 기능, 창업육성·문화 기능, 복합환승 기능을 도입하여 문화예술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노원역일대는 특화산업기반의 중심 기능 및 복합 비즈니스 지원 기능 등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구상(안)입니다.

상업, 업무, 문화시설용지 및 연결교량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총괄도입니다.

동북권 창업센터 등 6개의 마중물 사업과 GTX-C를 건설하는 부처협업사업, 로봇과학관 및 사진미술관 건립, 송전탑 지중화 등

지자체 사업 14개,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 등 민간참여사업 3개 등 총 24개의 도시재생사업을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해외사례입니다.

영국의 런던 도심과 외곽 지역의 경계부에 100년간 변화없이 방치된 쇠퇴역세권 인킹스크로스 일대에 대해, 영국 커시슬로 구글 및 런던예술대 등을 유치하여 런던의 새로운 국제업무 및 문화예술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도시재생사례인 킹스크로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가깝게는 일본 철도부지 재생사례로 꼽히는 사이타마신도심 재생사업입니다.

도쿄 외곽의 낙후된 사이타마의 철도부지를 활용, 정부주도로 경찰국, 검찰국 등 17개 정부기관을 이전하고, 슈퍼아레나를 중심으로 쇼핑, 여가 업무기능이 복합된 사이타마 신도심의 도시재생 사례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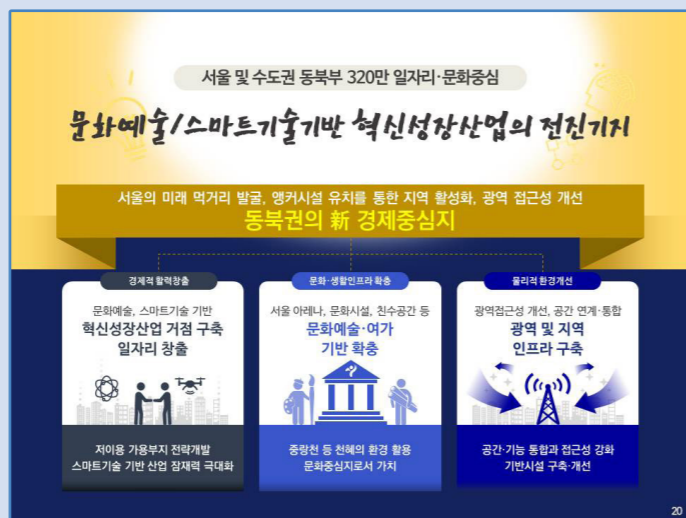
뉴욕 맨하탄동부 낙후된 섬인 루즈벨트 아일랜드는 시소유의 낙후되고 패쇄된 병원시설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던 곳으로, 과감한 토지 무상임대 및 지원 등을 통해 코넬대, 이스라엘 공대, 구글 등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으로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일자리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대한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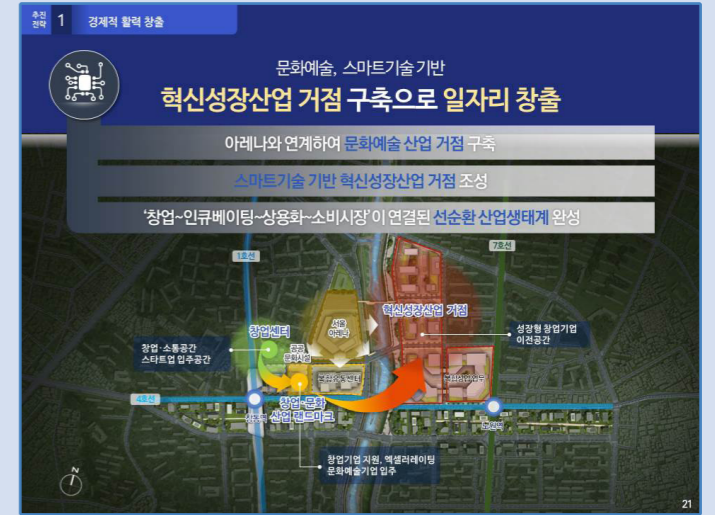


서울 및 수도권 동북부 320만 일자리-문화중심지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및 스마트 기술기반의 혁신성장산업의 전진기지”를 비전으로, 세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경제적 활력창출”을 위해 문화예술 및 스마트 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산업거점 구축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문화예술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스마트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창업에서 인큐베이팅~상용화~소비시장이 연결된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서울아레나 및 공공 문화시설 건립, 중랑천변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및 여가 기반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음악·공연의 성지로 육성하고 서울사진미술관 및 로봇과학관 등 공공문화시설을 건립하는 한편, 동부간선 지하화를 통한 중랑천변 친수공간 및 문화예술 거리 등 복합 문화·생활인프라를 확충코자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물리적 환경개선입니다.

광역 접근성을 개선하고,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계-통합 등 광역중심지에 걸맞는 광역 및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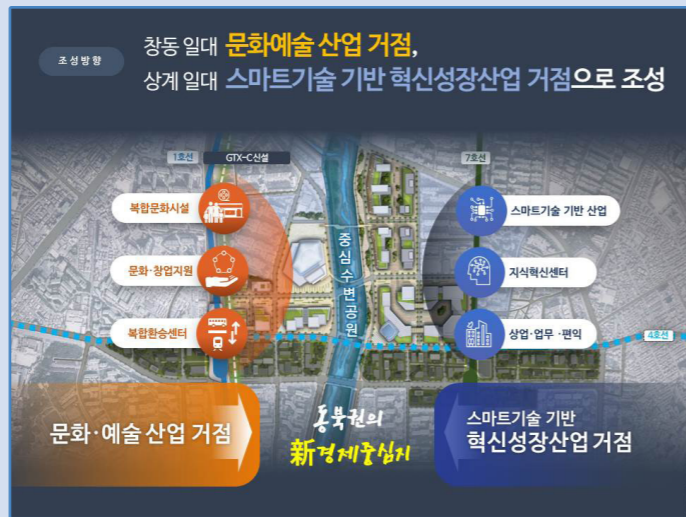
GTX-C 신설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 등 중랑천으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하나의 중심으로 통합하는 한편, 기상상업지 및 주변지역으로 광역중심지 기능을 확산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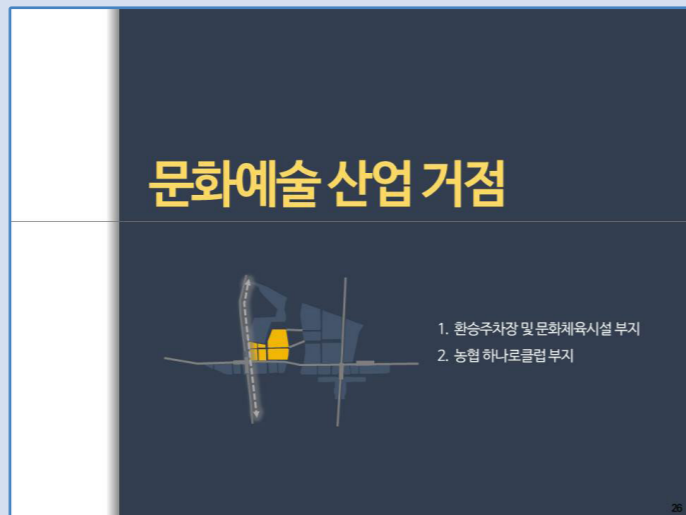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거점별 실행계획 및 향후 계획입니다.



중랑천중심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좌측의 **창동 일대**는 문화·예술산업거점으로, 우측의 **상계 일대**는 스마트 기술기반의 혁신성장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여 동북권의 신경제 중심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쪽은 오렌지 계열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산업거점에 대한 세부 계획입니다.



창동 일대의 현황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청소차량 차고지, 광역 푸드뱅크, 환승주차장 및 문화체육시설과 농협과 공동소유인 농협 하나로클럽이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3만㎡ 입니다.



서울아레나 및 서울사진미술관, 로봇과학관을 중심으로 공연인프라 기능 및 문화산업 생태계 기반을 확충하고, 창동 아우르네, 씨드큐브 창동, 복합 환승센터 및 복합문화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공연·문화와 창업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은 '18.12.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민간사업자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며, '21년말 착공, '2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동 아우르네는 지난 '18.6월 착공하여 금년 10월말 준공한 시설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팅시설 및 청년창업 주거지원시설 등을 갖춘 세대융합형 복합시설로 창동·상계지역의 첫 마중물사업입니다.



씨드큐브창동은 이 지역의 랜드마크시 설로 높이 49층, 연면적 14,500㎡의 규모로, '19.11월 착공하여 '23.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있으며, 문화창업오피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문화집객시설, 창업창작 레지던스 및 공유주차장 등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로봇과학관 및 서울사진미술관도 국제 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1년 착공하여, '23년에 개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초의 붐업사업으로 '16년 개관하여 운영중인 플랫폼창동61은 공연, 실습 등 음악관련공간과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주민위크숍 등 커뮤니티공간으로, 복합환승센터 착공직전인 '22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이용중인 창동역 고가하부의 문화예술공간은 '18년 공사를 완료하여 '19년 4월부터 창작문화체험공간 및 광장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창동61 및 환승주차장으로 이용중인 부지는 GTX-C와 연계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할 부지로, '22년착공, '25년 완료예정

으로 신속한 사업추진 및 국비 지원을 위해 현재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진행중에있으며, 지하철 1·4호선 및 GTX-C를 비롯한 버스, 택시,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간 연계 및 상업·업무 등이 결합된 복합 환승센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농협 하나로클럽 부지는 일반 상업지역임에도 저이용되고 있는 약 34,000㎡ 규모의 부지로, 토지주인 농협경제지주 측과 서울아레나와 연계한 복합 문화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중에있습니다.

복합문화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구상(안)입니다.

다음은 상계동 일대, 스마트 기술기반 혁신성장산업 거점에 대한 계획입니다.

'24년 진접으로이전 예정인 4호선 창동차량기지과 장암동일대 이전을 추진 중인 도봉면허시험장 등 약 25만㎡의 대규모 가용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기술 기반 혁신성장산업 거점

부지현황

4호선창동차량기지 '24년 진접으로이전 예정, 도봉면허시험장이전 후보지 검토 중
약 25만㎡의 대규모 가용부지 발생

창동차량기지

- 면적 : 179,578㎡
- 토지소유 : 서울교통공사(99.1%), 서울시(0.8%), 국가(0.1%)
- 시설현황 : 관리용/검수고 등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봉면허시험장

- 면적 : 67,420㎡
- 토지소유 : 경향일보(73%), 서울시(18%), 노원구(9%)
- 시설현황 : 본관, 기동장 등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용도변경후 부지매각을 통해 차량기지이전비용 등 부담

상계동 차량기지 이전부지 등은 동북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스마트 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산업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는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 될 서울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기술 기반 혁신성장산업 거점

종합구상 (안)

차량기지이전부지를 동북권전체의발전을 견인할
스마트기술 기반 혁신성장산업 거점으로 조성

공공선도형개발 성장형기업에서 대기업까지단계별 유치 산업진흥을 위한 공공 지원시설 도입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S-BMC 조성)

혁신성장기업 유치 지식재산센터 복합계원 유치 복합 상업·업무단지

스마트기술 기반 혁신성장산업 거점

3 시민참여형 개발방안 구상 추진

기존 계획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전문가가 협력하는 개방적 협력과정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한 공론화의 실험적 모델

온라인플랫폼
기분구상관련 의견아이디어제시

1 아이디어제시 2 온라인플랫폼 3 현실성 분석 4 시민투표로 결정

5 다수 의견 채택 (전문가 검토) 6 문제점 제기 및 영구히트 7 3D로 구현, 시뮬레이션

결정된 아이디어를 3D 도시로 구현하고, 공론화 및 시뮬레이션

'19년부터 3D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시 태어나는 창동 차량기지 일대, 시민이 만드는 서울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라는 제목으로 1차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2차 학생·전문가를 대상으로 3D구상 공모전을 시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3D 공모전 대상작품입니다.

스마트기술 기반 혁신성장산업 거점

3 시민참여형 개발방안 구상 추진

다시 태어나는 창동 차량기지 일대
시민이 만드는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1단계 : 시민 의견있어요 ('20. 4.~ 7.) 2단계 : 학생·전문가 3D 구상 공모 ('20. 7.~11.)

※ 대상작품 : 일과여가가공존하는 곳 스마트메디시티

마지막으로 지역간 연계 통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입니다.

**거점·지역간통합
기반시설 설치·개선**

- 동선 및 기능 연계
- 여가·휴식공간 조성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GTX-C 건설과 동서간 연결 및 진출입체계 개선을 위한 보행전용 교량과 보차도 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을 지하차도로 건설하고, 상부를 공원화하여 중랑천과 어우러지는 수변공원으로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결교량 설치, 중랑천변 중심공원조성 등으로
창동~상계 지역의 동선 및 기능 연계·통합

동부간선도로(지하차도선상) 확장 GTX-C선상 (KTX연결) 내부도로 연결체계 구축

보행전용 교량 설치 중랑천변 중심수변공원 조성

2025년(예정) 2026년(예정) 2027년(예정)

사람과 물, 일과 놀이가 어우러진 여가와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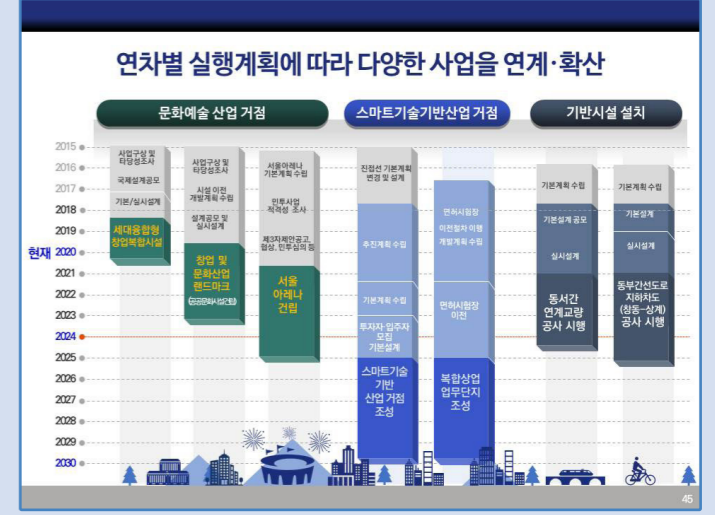
북측 집중 사업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남측의 기성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광역중심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가로환경개선, 특화거리 조성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총사업비는 약 2조 8천억원으로 약 8700억원의 확정된 공공재원 이외에도 민자유치 및 리츠 투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실행계획을 보면, 창동일대 문화예술산업 거점조성은 2024~2025년 완료를 목표로, 상계일대는 차량기지 등의 이전시기에 맞춰 스마트 기술 기반의 혁신산업 거점으로 2025~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에 대한 전체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의 날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과 시민참여”란 주제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에 시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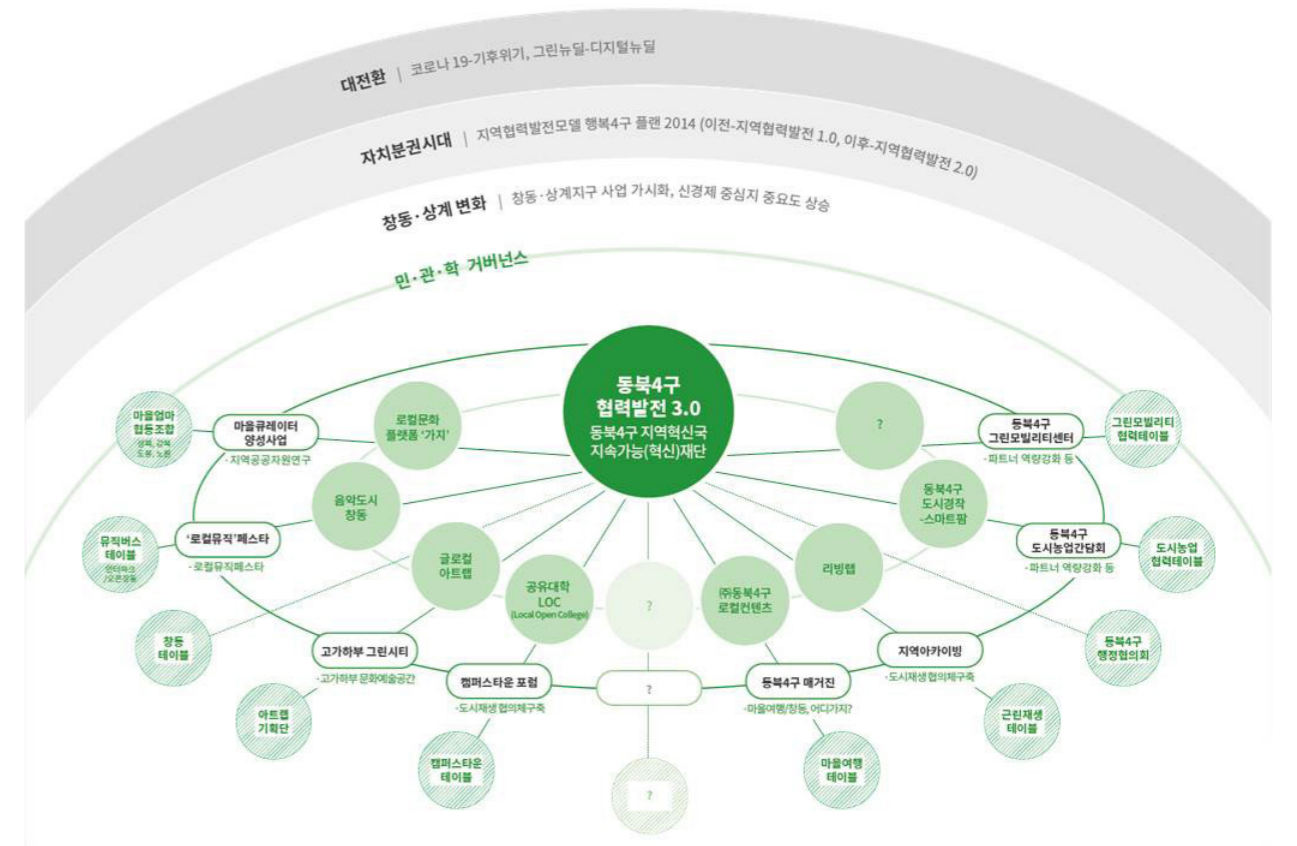




발제 2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와 동북4구 센터의 역할의 현재와 미래

안석희 |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센터장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와 마을엄마 협동조합의 만남

모든 일의 시작은 마을엄마협동조합이 저희 센터를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엄마 협동조합은 성북구 장위동 도시재생 지역에 계셨던 주민 분들이 직접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장위동 도시재생지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들으시다가 교육 프로그램들이 당신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를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대상으로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저희 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성북 뿐만이 아니라, 도봉과 노원 그리고 강북에도 이러한 경험을 가지신 지역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분들을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하시고 싶어 하셨던 일은 마을 큐레이터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북4구 마을큐레이터 사업

동북4구 마을큐레이터 사업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산들, 특히 요즘에는 생활 SOC라고 해서 많은 지역 자산들이 있는데, 이것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주체들을 직접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서울시에 광역 협치형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여 사업비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받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사업계획서를 써서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에 이 사업을 받아줄 주무부서가 없으면 올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를 찾다가 결국 저희 센터의 주무부서인 동북권 사업과가 다행히 받아주어 무사히 엠보팅을 하게 됐고, 투표를 통해 다행히 지난 9월 1일에 광역 협치형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3억 7천 정도의 비용인 예산을 받아 내년에 이 사업들을 조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은 마을 엄마 협동조합이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동북4구 지역에 있는 다른 여성분들과 함께 로컬문화협력플랫폼 '가지'라는 이름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함께 무엇인가를 진행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 지역의 주민들과 4구의 주민들을 모아 함께 이 사업을 준비하고,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그간에 진행해 온 모든 것이 남아 있으며, 이것이 동북4구 지역협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4구 협력발전의 현재, 2020 동북4구 협력 테이블

올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동북4구 협력테이블들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동북4구 협력테이블들을 중심으로 센터가 만들어가고 있는 동북4구 협력의 현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뮤직버스테이블

첫 번째로 뮤직버스 테이블 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센터는 플랫폼창동61이라는 컨테이너 61개로 만들

어진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에서는 음악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과 연결하는 지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 역시도 이 플랫폼창동61에 깃들여 계신 여러 음악인들을 동북4구 지역으로 확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서로의 요구가 딱 맞아 떨어졌던 게 뮤직버스 프로젝트였습니다. 뮤직버스라는 게 별게 아니고 뮤지션들을 태우고서 아주 쉽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트럭 같은 겁니다.

버스라고 일단은 이름을 붙였던 이유가 이 버스를 타고 동북4구를 돌아다니면서 뮤지션들이 공연을 같이 하면 훨씬 더 창동 외의 음악적 자원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획서를 써서 국내 유수의 기업 사회공헌팀에 뮤직버스 만들 자금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쉽게 안됐습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엄중해 공연을 하는 게 어렵다는 답변이었지만, 이런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다 이런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생각을 했던 것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지역 뮤지션들과 같이 공연하는 뮤직페스타라는 사업이 있는데, 로컬 뮤직 페스타로 이름을 바꾸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로컬이 붙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 대중 음악계를 보면 한쪽은 BTS로 대표되는 주류 아이돌 음악이 있고 또 그 맞은 편에는 홍대 인디신으로 불리는 장르 음악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다 생활음악이죠.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 음악하시는 분들은, 취미로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스타들을 꿈꾸기도 하고, 굉장히 지역에 뿌리박아 음악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뮤지션들을 로컬 뮤지션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로컬 뮤직들이 함께 모여 페스티벌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이슨 트라즈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제이슨 트라즈는 신곡을 발표할 때는 꼭 자기가 처음으로 신곡을 발표했던 샌디에이고의 아주 작은 카페에서 신곡을 발표합니다. 저는 이런 음악들을 로컬 뮤직이라고 부르고 싶고, 로컬 뮤직들이 서로 모여서 페스티벌을 만들다보면, 주류 대중음악이나 장르 음악 뿐만이 아니라 지역이 조금 더 문화적으로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음악도시 창동이랑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역과 음악이 만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창동역 광장일대 테이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창동 테이블입니다. 창동역 주변에 많은 시민 사회단체도 있고, 중간 지원조직도 있고, 또 예술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분, 한분 초대해서 차도 마시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도 듣고 또 소식 같은 것도 서로 전하고,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고 모여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모여가지고 시민 자산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다를 떨고 놀긴 하지만 조금 재미있는 일들을 배웁니다. 그 사이에 유럽에서 아레나 건물

들을 몇 개씩이나 설계를 하셨던 건축가분이 오셔서 창동에 아레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일단 보도블록부터 다 바꿔야 된다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버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음악도시 창동에 디렉터라고 볼 수 있는 이동연 교수님이 오셔서 왜 도대체 창동에 음악도시 계획들이 있는지, 아레나가 건설 되는지 등 뒷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동이 창고가 있어 창동이라는 이름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창이라는 게 한자로 이야기하면 노래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중 음악도시 이렇게 하고 있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 글로컬아트랩

아트랩이라는 건 실험실 같은 것입니다. 자유롭게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일들을 좀 자유롭게 벌여가는 것이죠. 동북4구에는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시각 예술가와 작가분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건축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어디서 활동을 하느냐 하면, 지역으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창동에 문화산업단지만 만들어지면 꽤 좀 즐겁게 일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또 성과를 내기도 하고 성과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만 하는 게 아니라, IT엔지니어, 기획자, 또 주민들과 함께 무언가를 즐겁게 해보는 공간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트랩을 만들자, 로컬 아트랩 뿐 만 아니라 사실 아티스트들은 다 국제적인 연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 아트랩을 만들면 지금 현재 창동에 문화산업으로 들어서는 수많은 인프라들이 아티스트들에게 굉장히 좋은 놀이터가 되겠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미있게 이야기한 것은 아스 일렉트로닉카라고 세계 최대의 미디어 축제입니다. 다뉴브강을 사이에 두고 양안에서 굉장히 큰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이 페스티벌 때문에 오스트리아 린츠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부

흥을 했고, 세계의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 창동 광장의 고가 하부 공간이 보였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삭막한 회색공간입니다. 그곳을 녹색 그린 윌을 세우고, 또 태양열 관수시스템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린 교육 등을 통해서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시민들과 관계를 맺는다면, 아트랩은 현재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가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유대학(로컬오픈컬리지)테이블

아까 여러 가지 발제 속에서도 나왔지만 동북4구에는 종합대학 15개와 캠퍼스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한 유형으로 대학이 대학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와 만나 지역에 활력을 만드는 것이 캠퍼스타운 사업입니다. 동북4구 내의 13곳이 캠퍼스타운 사업입니다. 그중에 몇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이 이렇게 많은데, 정작 주민들과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될지 잘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지역과 대학이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한거죠. 예를 들어 학점은 행재와 같이 지역에서 대학을 공유하는 것이죠. 과목들을 서로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 진짜 멋지겠다. 이 각각의 대학들이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 듣는다면 동북4구에 있는 청소년들은 굉장히 남다른 교육을 받게 되는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말에 캠퍼스타운 사업단들이 모여서 함께 대학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포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 마을여행 테이블

코로나19로 사실은 거의 여행업계가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습니. 그래서 해외여행 업체들은 거의 문을

닫을 정도가 되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국내여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북4구에는 이미 지역의 자원들을 찾아서 마을의 여행들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각 구마다 대표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 동북4구의 마을 여행은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마을 여행을 하면서 얻은 지역에 대한 지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 매거진으로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매거진은 아마 11월 중에 나올 거 같고, 첫 번째 주제는 마을 여행에 대한 주제는 아닙니다. 주로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것 같습니다. 동북4구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조금 집값이 쌀까요?’, ‘청년들이 살아가기 좋을까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살아가기 좋을까요?’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매거진은 사실 동북4구 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관련된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다른 형태로 창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주)를 붙여봤습니다. 동북4구의 로컬 콘텐츠를 가지고 만드는 모든 것, 여행을 하고 그 다음 정보를 가지고 매거진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고, 지역의 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 근린재생테이블

도시재생 유형 중에서 근린재생형이 있습니다. 주로 저층 주거지, 낮은 주거지의 사시는 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들이 조성되는데 동북4구에 한 5개정도 있습니다. 거기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과 모여서 이야기 해보니 굉장히 구체적인 생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큰 기술들이 아닌 동네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시재생센터에서 감당하기에는 약간 크고, 그것을 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한 요청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리빙랩이라고 부르는데, 일상생활연구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대학도 굉장히 많고 생활 기

술들이 필요한 곳에서 적재적소에 쓰인다면,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북4구는 7,80년대에 만들어진 저층 주거지의 보고입니다. 저층 주거지들이 사실 살기에는 그렇게 딱히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고 또 이것을 조금 보존하고 잘 알아둬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카이빙을 한 건축사 분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동북4구 행정협의회

동북4구 행정협의회에는 축사를 해주셨던 4구 구청장님들이 저기에 다 오시고, 기획, 예산 과장님들을 대동 하십니다.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과 구청장님들이 이렇게 모이죠. 거기에 서울시 동북권 사업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같이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방역 때문에 모이실 짬이 없었는데, 이제 곧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서 구청장님 네 분과 구의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 과장님들과 서울시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부분들은 조금 크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든든한 자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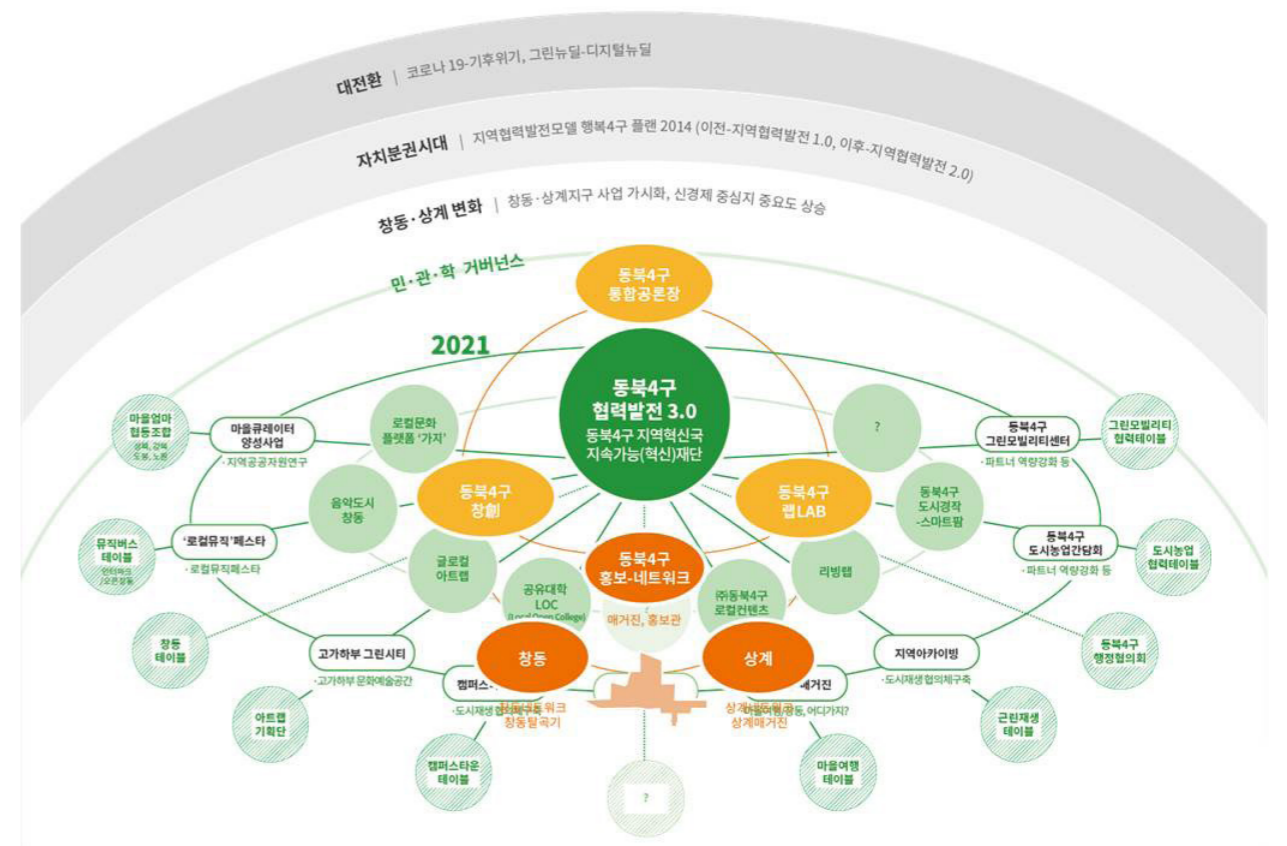
- 도시농업 테이블

마을 텃밭 혹은 도시농부 이야기로 대변되는 도시농업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 장마가 조금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장볼 때 애호박 두 개에 1,000원이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한 개에 5,400원인 겁니다. 물론 그 뒤에 4,800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최근에는 2,000원까지 내려가서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는데, 우리 먹거리를 이렇게 외부에 의존할 때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이런 것들을 외부에 의존할 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북4구에는 녹지 비율도 높고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모여 늘상 이러한 도시농업을 어떻게 하면 보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

다. 테이블을 꾸려서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 농업간담회를 해보자 라고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스마트 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농업 도시농업을 넘어서 경작으로 나아가는 빈 공간들을 잘 찾아서 정말로 우리의 먹거리들을 한 축으로 책임지는 이러한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모으고 있습니다.

- 그린모빌리티 테이블

그린 모빌리티, 여기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따릉이가 워낙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고, 또 지금 킥보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동을 위한 수단을 다같이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북4구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자동차 중심의 이동수단에서 살짝 벗어나 보는 것도 기후 위기 시대에 어울리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전망을 가져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함께 상상력을 모아갔으면 합니다.



지역협력과 도시의 변화

이렇게 한 해 동안 지역에 계신 분들과 테이블을 꾸리고 사업을 구상하고 전망을 만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전망이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지역을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해갔으면 합니다. 사업들을 묶고 그다음에 또 전망들을 묶고, 또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거버넌스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작다고 무시할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해 활동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가지 큰 변화들이 있지요.

첫 번째는 대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기후위기는 너무 강력한 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근본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시 1.0이 되면서 일상이 되어 가니까 '그렇게 될 또 바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대전환이 아닐까라는 생

각이 듭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린 뉴딜이라든지, 디지털 뉴딜이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우리의 대안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 번째 변화, 자치분권 시대입니다. 더 이상 중앙권력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고, 기초 지자체단위로, 광역단위로 이렇게 계속 권한들이 분산됩니다. 이런상황이 되었을 때, 동북4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협력의 경험을 가지고 있죠. 행복4구 플랜이라는 것을 2014년에 만들어서 자치구 단위가 아니라, 자치구 4개가 서로 묶여가지고 지역의 발전 계획들을 만든 어마어마한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 경험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자치분권시대에 우리의 갈 길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동·상계 지구의 변화입니다. 아까 발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조 8천억원이 들어가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어버리고, 예전에 창동·상계지구

그러면 다들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하나씩 둘씩 눈앞에 건물로 또 인프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 예전에는 그냥 잘 모르니까, 아 모르겠어, 이라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조금 더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될까에 대한 고민을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라도 조금 시작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동북4구 협력발전 3.0

이런 상황의 변화들 속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안은 동북4구의 협력 발전이 이제는 다른 단계로 조금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행복4구 플랜을 만들 때까지를 저는 1.0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행복4구 플랜을 만드느냐 지역의 활동가들, 행정, 그리고 정치권 이렇게 다함께 모여 행복4구 플랜을 만들었던 1.0의 협력경험이 있다면, 행복4구 플랜을 만들고 나서 창동·상계지구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어떤 사업이 들어와서 그 전에 협력들이 어찌됐건 잘 유지는 되고 있지만, 변화하지 못하는 단계를 2.0이라고 볼 때, 지금은 새로운 어떤 지역 협력에 방식들이 다시금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조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지역 협력 3.0이라고 일단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 혹은 주체를 상상해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는 생활권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동북4구의 지역혁신국 혹은 민, 관, 학이 함께 모여서 재단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21 동북4구 통합공론장, 동북4구 랩, 동북4구 창 그리고 창동·상계

일단은 통합공론장이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놓여진 이슈가 있고, 각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하는데 시간을 잘 못 냅니다. 이렇게 많은 회의가 있고, 포럼이 있고 또 활동이 있는데도, 정작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각자 대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산되면 지금의 과제들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 관, 학이 다시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것과 이슈들에 순서를 정하고 중요도를 따져서 앞뒤를 나누는 것을 시민 사회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정치권, 그리고 학계에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해보는 것이 내년의 핵심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론장에서 나온 이슈들을 그냥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것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실행 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고 찾아 들어가야 되며 사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동북4구 랩이라는 실험실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실험해도 되고, 아니면 캠퍼스타운 사업단에서 나오신 교수님들이 해도 좋고, 아니면 동북4구에 많은 학생들도 한편으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만 하는 것보다는 연구를 실행하는 것도 필요해서 창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창동에 창이 창고입니다. 근데 저 창은 창조할 창인데 참 재미있습니다. 창고를 저 옆에 붙은 게 이제 칼도 자인데 ‘창고를 나누면 창조가 된다, 공간 문을 열면 새로운 것들이 생긴다’라는 한자도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창입니다. 제가 아까 매겨진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든 자금을 외부에서 가져오면 안된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조금 가능하면 시민창업의 형태로 풀어 가야된다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창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뭔가 많은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고, 시민들이 스스로 꼭 필요한 것들을 익혀가면서 지역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작게 창업들을 해나가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론장, 랩, 창 이렇게 3가지 프로젝트로 내년에 어떤 기본 틀들로 잡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동은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투자되고 있고, 또 지금 많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는 네트워크들을 조금 더 창동테이블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또 올해 화제가 되었던 창동 탈곡기도 2호, 3호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 단체들 행정들과 만나는 방법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창동의 면모를 저런 빌딩들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바꾸어 나가는 역할들을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상계지구는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첫 단추를 잘 꿰는 겁니다. 어떻게 행정과 시민과 국가단위의 계획들이 조금 만나질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대중

팀장님은 시민참여라고 했는데, 시민 참여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구조를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지만, 높은 건물이 생기고 산업 단지가 생기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어주는 것은 아무래도 홍보,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래서 공론장과 창과 랩 그리고 창동·상계지구를 이어주는 홍보와 네트워크가 있을 때, 5가지가 순환하며 이 안에 많은 시민들과 행정 그리고 학계가 함께 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북4구의 새 이름

전환
순환
미래
균형
협력
⋮



Contact

동북4구
도시재생
협력지원센터

db4gur
@naver.com
02 907 9301

부캐의 시대, 동북4구의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연결하다

부캐의 시대죠. 지미유와 유산슬 등의 자기의 다양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동북4구에도 새로운 이름을 조금 붙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북4구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로 는 참 예쁘고 잘 어울리는 4구가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전환도시, 순환도시, 미래도시, 균형도시, 협력도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동북4구의 새로운 이름에 저런 뜻을 조금 가볍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당부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협력할 수 있게 다리가 되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이름도 동북4구 도시 재생협력지원센터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라서, 지원하고, 협력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자원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 내용이 무지막지하게 방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컨퍼런스를 듣는다고 이해하거나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더 오늘의 내용들과 동북4구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열흘 뒤 11월 23일 2시에 다시 모여서 이 주제들을 찬찬히 이야기 할 텐데 혹시 동북4구 센터와 함께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혹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 날짜에 오시면 됩니다.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다른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창동·상계 신경제지구가 굉장히 국가적이고 너무 규모가 커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각 자치구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도봉의 창동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북4구의 창동, 동북4구의 문화적 중심지 창동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원의 상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북4구의 상계, 바이오, 의료로서 발전해가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토론

동북4구 지역중심 협력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의 필요성

좌장

| 이기호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장

토론자

- | 안석희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센터장
- | 홍은정 도봉시민협력플랫폼 조직위원
- | 성원선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차장
- | 박영주 동북권 NPO지원센터 센터장
- | 서명갑 노원구 협치회의 민간의장
- |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영상보기



이기호

발제주제인 가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차원에서 해주신 3가지 이야기는 중요한 큰 틀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모순인지는 긴 호흡의 논의과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동북4구 협력의 모델을 구상할 때 강남을 따라 잡는 전략이 아니었으나, 우리의 꿈과 구상, 그리고 이미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습니다. 주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규모와 그렇지 않은 규모의 대비가 생기면 사실 주민들이 참여할 여지가 굉장히 축소되거나 자칫 들러리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우리의 상상과 실천으로 잡아내야하는 것이 바로 현재 동북4구가 협력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시대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것은 동네는 더 이상 잠만 자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주거공간에서 생활 공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하고 참여해야하는 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짧은 제한시간 동안 시민들의 참여 방안과 함께 각자 영역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왔는지의 사례를 소개해주시거나 시민들의 참여를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도시,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대한 의견과 동북4구의 상생을 위한 기조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박영주

동북권NPO지원센터에서는 권역단위 의제별 워킹그룹을 통해 협력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생활현장에서 실마리를 찾자는 의미로 청소년, 교육, 돌봄, 요양보호사,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워킹그룹을 운영해왔으며, 일반 학부모후속모임도 진행하고 있지요. 온라인 시스템하에서 각 가정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 사적공간의 공개 등 문제점 확인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와 같은 필수노동자들은 코로나시대에 노동을 이어가야하는데도 위험수당 부재한 현황인데 각 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월말부터

오늘 행사장인 창동아우르네에 입주하는 기관으로서 누구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공간을 만들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이 어떻게 함께 상생할 수 있을지를 협력기관들이 주체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서명갑

콘퍼런스 주제인 로컬x로컬에서 앞의 로컬은 동네, 뒤의 로컬은 동네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매머드급 개발과 로컬이야기 사이의 간극에서 동네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창동·상계 지역이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 같은 걱정도 듭니다. 사람들이 접근가능한 적당규모의 개발들이 분산형으로 추진되어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텐데, 이를 시민들과 함께 구청장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노원에 거주하며, 창동으로 시장을 보러오는 편인데 아직까지도 행정권역 중심의 정책으로 생활이 분리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도 화려한 적도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차원에서 관심과 배려도 필요하죠. 정책입안자와 시민들간의 도시에 대한 관념의 간극의 해소방안은 없는지. 사업계획, 주민공청회, 콘퍼런스 등 모든 것이 각각으로 느껴짐에 있어 주민, 행정 등 관련된 이들이 합리적으로 모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합적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원선

대규모 신산업지구 개발사업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미래의 어떠한 기폭제가 될 것인지 상상해볼수 있었으며, 노원개발당시 종로구와 성북구의 거주민들의 많은 이주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성북에도 큰 영향이 있을거라고 예상됩니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하나의 구역으로서 같은 생활권을 누렸던 동북4구라는 지역이기에 가능한 권역단위 협력이며, 각 지역, 특히 성북의 경우 공유성북원탁회의와

같은 협력테이블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거버넌스가 7,8년차에 접어들며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자체로 긍정적인 인식이 생겼고 시민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창동·상계 지역의 발전이 동북4구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동북4구 협력의 유관기관으로서 우리 각자가 먼저 징검다리 조직으로서 함께 협력의 경험을 쌓아가고 계획을 세워가야할 시점이지 않을까요. 함부르크의 하펜시티는 공공투자로서 시민들의 세금이 쓰여진 것에 있어 철저한 감시를 위해 심의 위원회를 조직하며, 주민센터를 지어주고자한 행정의 제안에 공원을 요구하며 지역축제 등 요구와 필요에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에서 나아가 주체가 되는 방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홍은정

도봉구 숲속에는 엄마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조성된 생태놀이터로서 2000년대 초반에서 2009년 사이에 걸쳐 초록나라 작은 도서관이라는 사회운동으로 확산된 사례입니다. 나아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보자는 취지로 동북4구의 대표적인 거버넌스인 강북풀뿌리포럼으로 발전된 것과 같이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했던 내재적인 힘을 끌어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동·상계 신경계중심지라는 한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거대한 인프라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는 공론의 필요성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속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활동가와 문화예술활동가들이 선두로 행정적 경계를 넘어 활동하는 것이 빈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센터에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동북4구가 함께 협력해갔으면 합니다.

정건화

동북4구라는 거대한 거버넌스의 실험에서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 대학들이 지역의 변화에 대해 어떤 역할과 목소리를 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토건사업인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

시재생 사업은 그동안 지체된 발전을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최대한 만회해보자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채워갈지가 중요한 부분이나 현재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 굉장히 불안하기에 계속해서 발언하고 개입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동북4구 도시재생 협력지원센터가 일몰제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 여러방식으로 제안했던 것과 같이 약간의 스케일을 가지면서도 공공의 지원이 없거나 줄어들더라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순환경제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정해진 계획내에서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민간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열정을 바탕으로 대학, 시민사회, 유관기관 등 그간의 협력 그리고 성과에 대해 돌아보며,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해봄으로써 대규모 개발 사업지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논의해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석희

콘퍼런스는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논의의 내용을 시작해보자는 의미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여러 형태(소규모, 포럼 등)로 모여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마을, 동네를 만들며 주인이 되고 활동해온 사례가 많은데, 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동북4구 협력이 새롭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후속적으로 이어질 간담회와 다양한 테이블에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동북4구 지역협력을 위한 도시재생 간담회

콘퍼런스 사전간담회

[문화와 참여]

| 주요내용:

- 창동역광장일대 민간거버넌스 테이블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일몰 이후 창동역광장일대 테이블의 운영 방향
- 도봉구 시민자산화 추진단의 활동 사례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 일시 및 장소: 2020.10.22.(목) 10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워크숍룸

| 참석자

홍은정 (도봉시민협력플랫폼/조직위원, 퍼실리테이터)

홍희정 (도봉 마을문화기획'담다'협동조합/(준)이사장)

박영주 (동북권NPO지원센터/센터장)

이은경 (도봉시민회)

허슬기 (창4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선애 (동북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코디네이터, 로컬문화협력플랫폼'가지'/조합원)

김상성 (동북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코디네이터)

김수연 (동북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코디네이터)

안석희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센터장)

| 세부내용:

[1] 창동역광장일대 민간거버넌스 테이블

- 창동역광장일대 민간거버넌스 테이블은 2020 상반기부터 시작되어 창동역 광장일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민간거버넌스 테이블임
- 당일 간담회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창동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도봉구 오픈창동, 인터파크 등이 참여하고 있음
- 현재 코로나19상황으로 창동역광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하나, 창동역 광장읽기, 창동역일대 인구조사 등 창동역 인근의 시민들의 니즈와 행태를 분석
-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를 향하는 현관과 같은 창동역광장의 역할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업무 공유를 추진

[2] 동북4구 센터 일몰 이후 창동테이블 운영방향 논의

-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계속 되는 한 붐업을 위한 창동역 광장일대의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해보임
- 민간거버넌스테이블인 만큼 센터 일몰 이후 협력의 단위는 유지하고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유지하는 방안 논의
-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창동아우르네 입주를 앞두고 준공시점부터 입주자 및 관리자 공동의 협력적 운영회의를 위한 ‘열린운영회의’를 서울협치담당관에 제안

이처럼 중복예산 및 사업을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창동역광장일대 거버넌스 테이블 유지와 함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의 시민참여공간에 대한 민간거버스의 협력적 참여 방안 필요

[3] 도봉구 시민자산화 추진단의 활동사례와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 민간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인근의 거점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도봉구 시민자산화 추진단의 활동사례로 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와 연계방안 논의

#시민자산화의 주요 포인트

영리사업자체가 주민들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비플러스, 크라우드 펀딩, 가치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을 모아야 한다

#도봉시민회의 시민자산화 전략

사회적기업, 공유오피스 형태

시민이 건물주

임대료 인하

시민기업의 연대

#도봉시민자산화 추진단의 역할

1) 추진단은 투자금x 2)의견제시자 3)발기인 4)추진단 모집중

(주요일정)

설명회(10~11월), 추진회의(11~01월), 법인설립(1월), 공간운영(21년)

콘퍼런스 사전간담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대학협력]

| 주요내용:

- 동북4구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대학협력기반 아젠다 발굴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와 동북4구 센터의 현재와 미래
- 글로컬아트랩과 LOC(Local Open College)포럼 기획

| 일시 및 장소: 2020.10.27.(화)10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워크숍룸

| 참석자

성원선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차장, 퍼실리테이터)
이기호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대학원장)
손동인 (동북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코디네이터)
김수연 (동북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코디네이터)
안석희 (동북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센터장)

| 세부내용:

[1] 동북4구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대학협력기반 아젠다 발굴

| 성원선

- 제도권 외의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연계된 사람들과 프로젝트 필요
- 문화적인 확장 시도를 위해 도시재생과 지역의 연계
-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글로컬 아트랩으로서 전환시도
- 도시가 구축하려는 방식을 문화예술 자원 활용
- 전문연구분야, 시민연구분야의 랩실 운영
- 지역문화+시민 > 문화예술융합 = 교육(대학)+문화예술(재단)+NEW(글로컬아트랩)
- 도시정책+문화

| 이기호

- 캠퍼스 타운 관련자들의 동력부여를 위한 목표와 방향성을 전략적으로 구성할 필요
- 사이드 이펙트 현상으로 인한 교수들의 대외활동 증가 활용
- 활동가들을 위한 오프라인 공간 제공 필요
- 오래된 지식(지식인)들을 활용하여 참여를 자연스럽게 지역 축제·문화로 유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델 구축
- 지식인들의 엔터테이너 적인 변화를 올드미디어에 빼앗기지 않도록 로직 구성
- 레고전략 : 마스터 플랜을 기준으로 탑다운 방식보다 풀뿌리 형식의 각자의 기능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의 전략

| 안석희

- 예술가들의 실험이 축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 마련
- 미디어 중심·송출 관련 규합을 위한 전략

[2] 기타 이야기

- 지식인 - 파주(PaTI) / 정부 - 광주(ACC) / 기업 - 파라다이스재단(송도) / 지역 - 시도해보기
- LOC의 기획방향을 이동연교수가 제안하고 있는 특수전문대학원의 형태로 기인하여 미디어와 대중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장제안의 필요성
-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대학의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시점
- 글로컬 아트랩을 위한 랩실의 역할 부여 고민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와 동북4구 센터의 현재와 미래
- 글로컬아트랩과 LOC(Local Open College)포럼 기획 (11.27 예정)

콘퍼런스 사전간담회

[로컬콘텐츠]

| 주요내용:

- 각자의 활동에서 바라본 동북4구
- 동북4구 협력의 필요성과 핵심가치
- 함께 할 수 있는 동북4구 콘텐츠

| 일시 및 장소: 2020.10.28.(수) 16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워크숍룸

| 참석자

- 김가희 (성북 마을온예술/이사장, 퍼실리테이터)
- 김준용 (성북&동북권 마을미디어 네트워크/대표)
- 오주형 (홍릉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사무국장)
- 최한수 (에코이앤지/대표)
- 홍주현 (도봉 청년인정/대표)
- 유환주 (도봉 마을아카이브/대표)
- 김수연 (동북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코디네이터)
- 천예원 (동북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코디네이터)

| 세부내용:

[1] 각자의 활동에서 바라본 동북4구

| 홍주현

- 도봉 청년인정에서 활동, 청년 참여 정책 및 콘텐츠 제작(인문지리서, 마을여행 예능 등)
- 도봉에서만 활동중, 각자의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경향 있음

| 최한수

- 생태관련 활동, 기후위기/생태전환에 대한 강의 및 콘텐츠 요청 증가
- 농촌 생태관광 콘텐츠 컨설팅 → 동북4구에도 적용

| 김준용

- 성북 마을미디어에서 동북권으로 확장
- 문화/역사/생태에 대한 자원이 동북4구에 많음

[2] 동북4구 협력의 필요성과 가치

| 오주형

- 무엇으로 협력할지가 중요
- 각 구의 특성과 공통점을 엮을 필요성
- 거점의 혜택과 수혜를 다른 구에 전달할 수 있다면 좋을 듯
-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리더들을 발굴
- 네트워크, 공유체계 및 수단이 필요(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혜택 나누기 등)

| 유환주

- 협력은 이해관계. 동북4구가 협력해야하는 이유는 역사, 자연, 지리적 연관성이 있음
- 마을여행 진행 시 구별 활동지역 상충하는 문제 발생
(예-노원 경춘선숲길 여행 시 왜 도봉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노원을 소개하는지)
- 네트워크화 필요 → 동북4구 마을여행지원센터 or 로컬콘텐츠지원센터 형태

| 홍주현

- ‘협력을 하기 위해 모이자’는 주객전도. 각자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 모여보자,라는 형태가 자연스러움
- 도시재생 기업의 성격(건축, 예술, 시민사회 등)에 따라 방향이 달라져서 지역 내 청년그룹, 스타트업을 지원할 필요 느낌

| 김준용

- 상생을 하다 협력하는 것
- 시설뿐 아니라 누가 공간을 활용할지도 고려
-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필요

[3] 함께할 수 있는 동북4구 콘텐츠

| 유환주

- 지역의 성공사례는 많으나 동북4구의 사례는 없어서, 주체들이 모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경향
- 동북4구가 공유하는 유일한 하천 우이천 활용 방안
(포도청-포졸, 우이천 지킴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천(川)씨네(cine)-영화상영 /반려견 장터/자전거 수리/담장, 벽 활용 등 문화활동 공간)

| 최한수

- 동북4구 행정의 벽(예-노원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노원구민만 참여가능 등) → 이런 프로그램을 구가 협력하여 동북4구 주민으로 넓히는 방안
- 동북4구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 남-북으로 이어지는 생태축
- 생태는 다른 장르와 콜라보 가능(현대음악, 국악, 마술 등)

| 홍주현

- 콘텐츠를 발굴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야함
- 지역콘텐츠인 골목상권을 보호할 필요성
- 청년그룹에게는 콘텐츠로 생존하기 위해 시장에서 팔리는 것이 중요
- 지역상품은 상행위에서 시작, 지역정체성을 가진 상인들의 상행위 조명, 지원 및 아카이브 필요
→ 이런 활동을 하는 로컬전문기업 필요성 (예-어반플레이)
- 지역 주체와의 콜라보 프로젝트도 반응이 좋음(마을여행예능 with 마을아카이브)

| 오주형

- 도농 관광콘텐츠, 텃밭체험 등

[4] 요약

- 공통 자원인 생태를 중심으로 한 협력 가능성
- 로컬전문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필요

콘퍼런스 사후간담회

[동북4구 협력발전과 지역협력]

| 주요내용:

- 동북4구 협력발전 온라인 콘퍼런스 회고
- 동북4구의 시민력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를 중심으로 한 동북4구 통합공론장 구성

| 일시 및 장소: 2020.11.23.(월) 14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워크숍룸

| 참석자

- 1) 서명갑 (노원 협치회의/민간의장)
- 2) 홍은정 (도봉 시민협력플랫폼/조직위원)
- 3) 안석희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센터장)
- 4) 김수연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코디네이터)

| 세부내용:

[1] 동북4구 협력발전 온라인 콘퍼런스 회고

| 안석희

- 가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세가지 측면에서의 발제를 통해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의 민·관·학의 관계의 현재를 진단
- 지속가능한 동북4구 협력발전을 위해 정건화 교수의 지역순환경제의 의견에 심분 공감하였음
- 사회적 '부'라 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을 가진 동북4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가야 함

| 서명갑

- 발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의 단계가 간극이 큰 것으로 보임
- 개발사업지 주변의 진공화 우려됨
- 창동이든 상계이든 상권으로서의 일관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성사업지의 활성화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

| 홍은정

- 아레나의 계획당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었음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인근의 주거지 및 교통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해 보임

[2] 동북4구 시민력과 통합공론장

| 안석희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센터는 일몰제를 맞이함에 따라 동북4구 협력의 중간매개자로서 센터의 역할에 변화가 필요
- 인프라와 지역격차 사이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현재
- 지난 세대의 조직방식이 현재 정치권으로 흡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복원하기 보다 공동화된 현재의 시민사회를 어떻게 연결할지 방안이 필요
- 문제해결형보다는 새로운 전망,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열어둔 조직구성이 필요

| 서명갑

- 동문회와 동호회를 예로 들었을 때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
- 과거 존재했던 조직, 동북4구 추진위원회랄지 기존조직의 현상황을 파악했을때, 기존의 방식으로서는 공허한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더구나 목적없는 조직은 흩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느슨한 연대와 긴호흡의 방식에 공감
- NPO, 협치, 자치 등 정형화된 단어를 내세울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므로 어떠한 목적으로 모임지 뚜렷하게 정리되어야함

| 홍은정

-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조직, 마들 나눔의집 등 기존 조직들이 사회적이슈가 사라지면서 동력을 잃었음
- 사회이슈로 묶이기 보다 지역에 관심을 두고 의견을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구조가 용이해보임

함께 한 사람들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오대중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발전기획팀)

안석희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이기호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박영주 (동북권NPO지원센터)

서명갑 (노원구협치회의)

성원선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홍은정 (도봉시민협력플랫폼)

홍희정 (도봉 마을문화기획 '담다' 협동조합)

이은경 (도봉시민회)

허슬기 (창4동주민자치위원회)

이선애 (로컬문화협력플랫폼 '가지')

김가희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 '마을온예술')

김준용 (동북권 마을미디어네트워크)

오주형 (홍릉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최한수 (에코이앤지)

홍주현 (청년인정 협동조합)

유환주 (썬마을아카이브)

김성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김영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경수 (강북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이상훈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북2)

박진식 (도봉구의회 의장)

뮤직브레인

빈티지프랭키

더 신디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북부캠퍼스

내연연구원

민들레출판사

고려대 법학연구원

소셜혁신연구소

QR코드를 스캔하여
열정으로 가득했던
로컬x로컬의 현장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 동북4구 협력발전 콘퍼런스 다시보기



I • SEŎUL • U

